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임정을 밝히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임현정기자

## 경기 지자체들, 개발지 유사 투기조사 착수

시흥·광명 이어 안산도 전 공무원 조사  
정총리 “경기·인천 공무원도 신속조사”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안산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 유사 사례 확인에 나섰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장상지구(장상·장하동 일대 221만3000㎡)와 신길2지구(신길동 일대 75만㎡)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안산시는 4일 시 소속 공무원 전원과 도시공사 소속 3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개발 예정지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흥시와 광명시는 조사에 착수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전 이 지역 토지 매수 시기와 양태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따져 위법 사례가 발

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일 시 소속 공무원 등의 해당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유사 조처를 포함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안해결을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에게 큰 심재를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음 주까지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면서 정 총리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 접종후 사망 또 나와... ‘불안 가중’

전북서 50대 기저질환자 2명  
대전 요양병원 입원 20대女도  
丁 총리 “사인 명확히 규명해 공개”  
6일간 누적 15만4421명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3명이 사망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북에서 50대 기저질환자 2명과 대전의 한 요양병원 입원해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다고

밝혔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전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52)는 지난 2일 오전 9시 10분에 백신 접종을 했으며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숨졌다.  
부안군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B씨(58)도 전날 오전 11시 백신을 맞고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숨졌다. 대전의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인 20대 여성인 C씨도 지난 2일 백신 접종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사인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의 1호 접종자인 김연수 원장도 접종 후 “특별한 이상반응은 없다”며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와 관련 “백신이 이상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특정 제품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며 “국민들도 믿고 맞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백신 접종자 9세까진 전날 하루 동안 6만5000여 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접종자는 총 6만 544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날 26일 누적 접종자는 15만4421명으로 늘었다. 국내 인구(5200만 명) 기준 대비 접종률은 0.3%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는 15만1679명, 화이자 백신 누적 접종자는 2742명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 인천 자체매립지 영흥도 확정

인천시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최종 후보지가 영흥도로 확정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4일 시청 공강회의실에서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영흥도 영흥면 외리 248의1 토에 24만㎡ 규모의 에코랜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흥도를 친환경 특별성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시는 매립지 조성에 반대하는 영흥도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발표 때 포함되지 않았던 제2영흥대교 건설을 약속했다.  
시는 안산 대부도 구릉도에서 영흥도 심리 포를 잇는 제2영흥대교는 약 6km 길이의 2차선 교량이며 사업비는 2400억원으로 다리가 개통되면 인천 내륙에서 영흥도까지 차로 가는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고 전했다.  
또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 분진 피해를 막기 위해 아저장에 돛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LNG 연료 전환과 화력발전소의 조속

24만㎡ 에코랜드 2025년 6월 준공 목표  
제2영흥대교·매년 50억원 기금 ‘당근’  
후보지확정에 주민들 반발 “계속 투쟁” 반대 투쟁위, 투명성·공정성 의문제기  
한 폐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년 50억원의 영흥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근린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영흥도 지역 섬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승진(57)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반대 투쟁위원회 상임대표는 “인천시가 매립시설을 짓는 대가로 주겠다는 해택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제2영흥대교를 건설하려면 경기도 안산시 등의 행정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언제 준공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 임 상임대표는 “제2영흥대교가 섬 주민들 전용 도로가 아니냐”며 “섬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만 늘고 주민들이 육지를 오는 시간은 크게 줄지 않아 혜택으로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 관광객 중에는 캠핑족이 많이 음식을 집에서 가지고 들어온다”며 “관광객 증가로 지역 상권이 크게 살아나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임 상임대표는 “영역 결과에 담긴 후보지 5곳을 모두 밝히지 않고 영흥도만 짚어서 최종 후보지로 발표했다”며 “신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당분간 계속 쓸 수 있는데도 인천시만 왜 별도의 매립시설을 영흥도에 만들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매립지 건설 반대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경실련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고의 은폐”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자료 의원실 제출”  
SH “신재해있어 찾는데 시간... 고의아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를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했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소송 환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15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

을 속인 SH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SH공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 자료를 제출받은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시장 시기 서울시가 마곡 15단지의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다. (오전 시장 때와 비교해) 물가인상분 이상으로 건축비가 오른 것이 수상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기 발산 4단지 분양가는 평당 588만원인 반면, 박원순 시장 재임기 마곡 15단지 건축비는 평당 1218만원이다.  
한편 SH공사는 이와 관련 반박 자료에서 “1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 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잘못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라 2심에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늘 한 자리에서  
한결같이 동네를 지켜온  
작고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낮엔 쉬어 가라며 길을 내어주고  
밤엔 조심히 가라며 길을 비춰주던  
그 가게들을,  
이젠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튼튼한 힘이 되겠습니다**

**NH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영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입지 및 상권, 고객 분석 | 재무관리 및 회계전략 | 소상공인 관련 법령 | 홍보 및 유통 판로 확장을 위한 마케팅 교육

※ NH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준법감시기 심의필 : 20202981(2020.10.12~2021.12.31) ※ 관리부서: NH농협은행 기업고객부



단신브리핑

세종 프렌즈, 전 세계에 세종 알린다

세종시는 4일 제1기 글로벌프렌즈 '세종프렌즈(Sejong Friends)'를 위촉하고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프렌즈는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미디어 홍보단으로, 올 한 해 시 관광홍보,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며 이를 홍보하거나 선진시책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세종시 홍보에 나선다.

올해 선출한 세종프렌즈는 미국, 에콰도르, 팔레stin, 엘살바도르, 캐나다 등 5개국 출신 외국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날부터 연말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자유롭게 세종시 관광명소 체험하기, 공공시설 이용하기, 도시 생활상(산비로그) 등을 각기 운영 중인 SNS계정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종시를 영어로 홍보하게 된다.

이후의 시정은 "세종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대한민국의 심장적인 행정수도, 세계적으로도 수도 이전 모델사례"라며 "세종시의 생산한 발전상을 보다 많은 국내외 외국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프렌즈에 위촉된 미국국적 윌어민 교사 테이텀(Tatum)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생각만 품고 있던 세종시 홍보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하며 느낀 아담하고 평화로운 세종시를 외국에 사는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세종프렌즈가 제작한 우수 홍보콘텐츠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공식 SNS, 외국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청렴 실천운동

충북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시 공무원과 사업장간 유착 등 청렴 사각지대를 차단기 위해 '청렴은 물리고, 오염은 줄이고' 운동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이 실천운동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등급이 중점 등급 이상인 사업장 ▲올해 처음으로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등 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또 관계자는 "이번 청렴 실천운동을 좀 더 투명하고 명료한 단속 업무를 추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신뢰받는 청렴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양철기기자 <cyang65@jeonmae.co.kr>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점검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일까지 봄 개학을 맞이해 초등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류, 빵류,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과 학교 앞 분식집, 제과점, 문구자, 슈퍼 등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64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품질·저염양 식품 또는 고가대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지도가 중점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대해 지속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판매 환경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양철기기자 <cyang65@jeonmae.co.kr>

4대 분야 10대 과제 102개 사업  
탄소중립 비전선도... "선택이긴 필수"

전남도가 청정산업 등 4대 분야 10대 과제 102개 사업에 75조 규모를 들여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9200만톤을 감축을 선언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전남 오후 여수세계박람회 회장 엑스포홀에서 2050 탄소중립선언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2017년 기준 전남의 탄소배출량 9200만톤을 2050년까지 30.5%, 2050년까지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부문 탄소 감축으로 2000만톤, 농수축산 스마트화로 200

만톤, 5억 그루 이상 나무 심기 등 도민 실천운동으로 2400만톤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청정산업의 경우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쇄, 스마트 그린산단과 RE100 전용산단 조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온실가스 저감 미래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2040년까지 전력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2040 전남도 RE100 실현, 신재생에너지와 기술개발을 통해 블루·그린수소 기반 수소경제 선도 등에 나선다.

정경생활 분야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기반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제로 인증제·그린리모델링을 활용한 탄소제로 건물 확대, ICT 기반 농수축산 친환경 스마트화 등을 추진한다. 청정산업 분야에서는 5억 그루 이상 나무 심기,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2500개

의 지역별 특색에 맞는 테마형 도시 숲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 인식을 확대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사랑꾼 운동,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중교통 이용, 장바구니 사용 등 범도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2050 전남도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전남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세우기로 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탄소중립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일상 속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모여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신념으로, 모든 도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악/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수소에너지 산업협력 간담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열려온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형 그린뉴딜 경기도-수원시 수소에너지 산업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충남도 '국비 8조원 시대' 준비 본격화

시군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국비전략팀, 8개 시군 25개 사업 우선

충남도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으로 '국비 8조원 시대'에 본격 나섰다.

도는 지난 1월 각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 중 도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해 10개 시군에서 40여 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예산담당관실 국비전략팀이 현장 업무를

수행하며, 8개 시군 25개 사업이 우선 컨설팅 대상이다.

도는 현장 방문 후 사업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0개 이내 핵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을 상

대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전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올해에는 정부예산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이전부터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시군과 함께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전략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재세본부/한상기기자

경북도, 위기이동 조기발견·예방한다

경북도는 위기이동 조기발견과 확대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별로 '위기이동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취약계층 맞춤형 전담조직인 도 드립스타트를 총괄지원센터로 하고 시군의 드립스타트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연계해 운영한다.

위기이동이 각 분야중 어느 곳든 SOS를 요청하면 위기 가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공유해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가정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일괄 해결해 주는 방식이다.

위기이동이 발견되면 각 시군에 조직된 드립스타트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욕구에 맞는 신체, 정신, 학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가정에 대한 다른 분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희망복지, 정신건강, 건강가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드립스타

트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양육을 위한 필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249개소)에서는 위기 가정 및 아동을 현장 최일선에서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며 희망복지지원단(23개소)을 통해 의료, 복지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정신건강을 위해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결, 삼라지료와 정신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극복을 하며 가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정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가족 관계향상, 의사소통방역, 역할지원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준다.

이철우 도지사는 "아동학대 발생 후 대응 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른 분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희망복지, 정신건강, 건강가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드립스타

경북/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경기도, SEMI 회원사 대상 투자유치 활동 전개

경기도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국내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SEMI 회원사로 가입했다.

도는 이날 중 경기도 반도체 투자환경을 홍보하기로 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성남 킨스타워, 중소기업과 외부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뉴스레터에 소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EMI 회원사의 날 등 각종 행사와 세미나를 통해 경기도의 반도체기업 입주 공간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SEMI는 지난 1970년에 설립된 협회로 장비, 소재, 부품 등 반도체 관련 전 세계 기업 2400여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고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반도체 협력 기구다. 국내에서는 약 350여 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강원도, 폭설피해 농가에 긴급 지원단 투입

강원도는 지난 1일·2일만에 걸친 대설로 인해 농담분야 피해를 입은 시군을 대상으로 '대설피해 응급피해복구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폭설로 인한 피해규모는 14개시군 148ha 면적에 119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양구군의 피해가 44ha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별로는 인삼재배 95ha, 비닐하우스 50ha 등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양구 등 10개 시군에 3월 4일~3월 5일까지 긴급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응급복

구를 위한 작목별 영농기술 및 소요 자재 수급, 군부대 및 유관기관 일손돕기 등 현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일부터 정밀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영일 도 농정국장은 "피해가 큰 인삼재배 시설을 신속복구하여 조기출아(出芽)에 의한 피해예방을 방지하고 비닐하우스는 영농이전 철거를 완료해 농정국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김영태기자 <youngt@jeonmae.co.kr>

양양군 공고 제2021-260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수산항 접근도로(군도5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1-53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 공고
고양시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북쪽현도면적 6-38L, 6-48L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주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2021년 03월 05일
고양시
고양시청
고양시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로명 유형별 면적(㎡)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신설 소로 3 515 4~6 국지도로 68 오금동704 오금동130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516 6 국지도로 205 오금동704 오금동131-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517 6 국지도로 330 오금동704 오금동138-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518 6 국지도로 42 오금동704 오금동668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역 변경내역 변경사유
- 소로 3-516호선 - 연장 : 중 68m - 면적 : 중 364.8㎡ - 도로신설 : 중 364.8㎡ - 삼송지이다별리지 6-38L 관승로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 3-516호선 - 연장 : 중 205m - 면적 : 1,379.7㎡ - 도로신설 : 중 1,275.4㎡ - 공공공지-도로 : 104.3㎡ - 삼송지이다별리지 6-48L 관승로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 3-517호선 - 연장 : 중 330m - 면적 : 중 2,531.8㎡ - 도로신설 : 중 2,422.9㎡ - 공공공지-도로 : 108.9㎡ - 삼송지이다별리지 6-48L 관승로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 3-518호선 - 연장 : 중 42m - 면적 : 중 277.5㎡ - 삼송지이다별리지 6-48L 관승로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관광시설
관광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로명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점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28 공공공지 오금동 672 공 80.0 강 80.0 국토부고시 제2013-425 (13.12.26)
폐지 29 공공공지 오금동 674 공 104.3 강 104.3 - 국토부고시 제2013-425 (13.12.26)
폐지 46 공공공지 오금동 673 공 28.9 강 28.9 - 국토부고시 제2013-425 (13.12.26)





경남 진주시는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생활권역 주요간선도로 연결사업, 시 외곽 우회도로망 구축사업 등 31개 사업에 시비 34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시의 도로교통 지도를 확 바꾼다는 계획이다. 사진 왼쪽부터 진양교, 말티고개현장. <진주시 제공>



진주시 진주시장

# 교통 기반시설 지도 '확' 바꾼다



경남 진주시는 올해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포스트 코로나, 서부경남 KTX시대에 대비한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생활권역 주요간선도로 연결사업, 시 외곽 우회도로망 구축사업 등 31개 사업에 시비 34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시의 도로교통 지도를 확 바꾼다는 계획이다.

● **진양교, 진주교, 10호광장 등 상습 교통체증 해소**  
시는 진양교, 진주교, 상평교, 10호광장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난해 완공한데 이어 내동오거리 개선사업도 지난해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금산교 접속차로, 상평교 상습 정체구간, 10호광장 서편 및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육룡삼거리 각각 정비 등에 682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량 분산으로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추진하고 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 광역도로망 구축 탄력**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 가시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오는 11일 주민공청회에 이어 5월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기본설계가 착수된다.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 406억 원이 이미 확보됐고 내년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을 거쳐 오는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시 통과 구간은 약 30km로 이중 사가지 및 남강 통과구간 약 8km가 지하화로 계획되어 소음 및 진동, 분진 민원은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신진주역세권~국도 2호선~정촌~사천 축동 간 신설 도로 개설 추진**

● ● ●  
**철도·도로 등 31개 주요사업 시비 3400억 투입**  
**교통체증 해소 시민 안전·편리한 도로환경 제공**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광역도로망 구축 탄력**  
**주요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올해말 완공 '박차'**

● ● ●  
진주 정촌~사천 축동 간 6.08km 구간에 1천404억 원의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진주와 사천을 연결하는 신설 노선의 정촌 국도 2호선 교차로에서 신진주역세권 구간 1.1km를 연결하는 사업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공사를 착공,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 **주요간선도로 확포장 추진**  
말티고개~장재, 금산교사거리~정흥교, 문산~금산간 지방도, 초전~대곡간 지방도, 명석~대림간 선형개량 및 확포장 등에 2009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또 명석~대림 간 선형개량 및 확포장 공사는 지난해 7월 사업을 준공했고, 말티고개~장재 간 등 3개 사업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금산교~혁신도시 간 도로, 내동~정촌 간 우회도로, 명석~집현 간 우회도로, 집현~문산 간 외곽도로, 자수~사불 간 도로 확포장, 부흥교~정흥교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으로 6236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돼 추진된다.  
또 명석~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오는 12월 준공 계획이며 특히, 금산교 사거리~정흥교 간 확포장 공사, 부흥교~정흥교 간 연결도로는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와 동시에 개통해 금산교 주변의 극심한 교통난을 두 배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 **주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올해 완공**  
주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68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기형적인 교차로 선형 개선과 함께 구)진주역 철도부지 복합문화공원 관문으로 재탄생 시킨다.  
또한 경상대~내동 간 시도 1호선 도로확포장 사업과 금산삼거리~지방도(1000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올해 말에 완공된다.

● **거점별 교통시설 확충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개발사업 진행**  
가호동에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 사업은 지난해 10월 사업 시행자 지정 완료 후 올해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해소 사업

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본격 운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가호동에 340억원을 들여 주차장, 관리동 및 정비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0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해 주차면수 145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는 304면의 주차장과 관리동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간설기계 공영주차장 준공**  
하호동 공영주차장은 3364㎡ 부지에 주차대수 60대, 관리 사무동으로 구성되며 사업비 18억원으로 이달 착공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 **특화된 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진주교~갈매리아 백화점 구간인 진주대로에 지역 역사와 정서가 반영된 특화된 보도장비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진주교~갈매리아 1.4km 구간에 2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5월 공사에 착공해 연말 완공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66개소에 22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 구역의 안전용 CCTV를 30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광장루원



삼원예촌



바래봉 절쪽

삼원시립김병종미술관



### “학생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나설 것”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용인대음학교 애로·개선사항 논의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용인대음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개교상황을 점검하고 학교시설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설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용인대음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개교상황을 점검하고 학교시설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설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용인대음학교는 지난 1일자로 개교한 특수교육학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실내 경사로 난간 펜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 설치와 모든 계단 난간 펜스의 추가 설치, 서쪽 계단 장문 안전바 설치, 옥상 안전망 설치, 교실장문 안전바 보강 설치, 유치원 야외놀이장 출입문 안전문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통학차량의 증차 요구와 통학로 도로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 교문 앞 마을버스 주정차 구간 설치, 학교 입구 초인 굴절도로가 통학차량의 안전한 회전 각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 등을 요구했다.

남 위원장은 “용인대음학교는 특수학교인 만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이뤄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교통약자에 대한 특단의 이동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학교의 교통약자에 대한 통학권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장해줘야 할 때가 됐다”며 “방과후 수업 등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교통약자 학생이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공유차량 등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환경 패키지법’ 대표 발의

“환경분야 실효성 높은 대안 마련 될 것”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환경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한 법률 등 총 5건이며, 애매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돼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두천/이육균기자 <leewg@jeonmae.co.kr>

# 윤석열, 전격 사의... “정의·상식 붕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 반대  
헌법정신·법치시스템 원천 파괴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  
자유민주주의 수호 온몸 비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오전 반차를 내고 직접 입장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 약화를 부각하며 중수형 정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에서도 “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임명권을 앞세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실상 없어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사퇴의사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임현정기자

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차례 브리핑에서 “저는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문제 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잘 협의해 앞으로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히며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헌법 체제와 법치

주의를 지키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최근 윤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러나 보다’ 하는 느낌이 있었다”면서도 “(사의를 밝히려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틀러 ‘윤 총장이 사전에 자신의 거취를 정부 측과 논의했는가’라는 물음에 “제가 아는 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

야 할 금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임명권자에 충실한지,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지에만 관심이 있다”며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대신이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하도록 때가 되면 준비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본격화... ‘룰의 전쟁’ 시작

중도 지지층 겹쳐 박빙 승부 전망  
조사문항·출마기회 주요 쟁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선출되면서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 대진표가 4일 완성됐다.

오 후보는 제3차대 경선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맞붙게 됐다. 이들 후보는 곧바로 단일화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안 후보는 “(오 후보와) 가끔씩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오 후보도 안 후보와의 만남에 적극적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결국 여론조사 문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는 국민의힘이 ‘야권 단일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했는지’를, 안 후보 측이 ‘내려야민주당 후보와 붙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지’를 조사 문항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이 나오지만, 당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안 후보 측도 반대에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개로 오 후보가 경선 토론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를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앞서 안 후보와의 ‘서울시 연립 정부’ 구상을 밝혔던 오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만으로는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안 후보가 호응한다면 후보 단일화 여론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형준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당지도부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추호영 원내대표, 오 후보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 박 후보,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연합뉴스/하서원기자

사 이전에 서울시 공동 운영에 관한 양자간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이밖에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 내지 합당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할지, 기호 4번을 고수할지도 관건이다.

양측은 그동안 출마 기회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과열을 최소화하고 ‘이름다운 단일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상황 관리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단일화 절차는 실무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안 후보는 최고위에서 “내가 이겨야 한다거나 우리 당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며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수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종 단일화 절차는 선관위 후보 등록일인 18~19일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 문대통령 “LH의혹,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

“구조적 문제 해결 근본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던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3기 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규명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

이번 의혹이 고질적인 부패 구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러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감사 필요성이 커졌던 데 대해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임팩트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 김진욱 “김학의 사건’ 내주 직접수사 또는 제이칩 결론”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 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로부터 이첩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로 출근하며 “(김학의) 사건 기록을 쌓아놓으면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이라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기록을 보고 차장과의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수사 외에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법이 적절하든 기록에 담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검찰로 제이칩하지 않는 게 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조조장이 감사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권을 인정할 건 맞다”면서도 “2조3항에 따른 제이칩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

전국매일신문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줄

#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01**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 두기

**02**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0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04**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05**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 19,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 LH “직원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대국민 사과

비상대책회의 개최...“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새사업 관련 부서 직원·가족 토지 소유 여부 전수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이날 배포한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에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

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간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

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 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이날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와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각종 모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영일기자 <leey@jeonmae.co.kr >



투기 의혹 제기된 시흥시 괴림동 인근 토지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괴림동 재개발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모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기자

# 경북도·구미시, 구미 산단내 3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그린패키지솔루션, 친환경 신소재 패키징 분야 550억 투자  
아주엠씨엠, 문물 제조 자동화 라인 분야 100억 투자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국가산단단지 내 3개 기업으로부터 총 9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도와 시는 4일 구미시청 상층실에서 3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그린패키지솔루션(대표이사 안성훈)은 식물성 원재료를 특수가공 처리해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친환경 신소재 패키징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4월 이 전했으며 올해 52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50억원을 투자한다. ㈜세이메카닉스(대표이사 조경현)는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로 전기차, 수소차, ESS 등의 친환경 부품과 연관기관의 디아캐스팅 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분야에 250억원을 투자한다. 아주엠씨엠(대표이사 정영준)은 방화문, 건축 내외장재 등을 전문생산

하는 기업으로 2022년까지 문물 자동화 라인 증설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대성 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다양한 지원책 강구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투자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신웅대기자 <shinyd@jeonmae.co.kr >



## 서산 잠흥동 지역주택조합 2차 조합원 모집 순조

450기구 중 1차 300기구 모집 완료  
평당 700만원 대...“고품질 프리미엄”

단지업 동문권공원 등 고품격 포커싱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작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는 시공현상이 공개되며 자문과도 아키텍처가 있고 있어 조합원들을 위한 예비조합원들은 안전하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 구성은 구)5평형 13세대, 30평형 9세대, 34평형 28세대, 총 4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 초반 대부터 후반 대까지 다양하면서도 과학적인 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잠흥동 서해로 353 르셀레딩을 2층 주택관리관 ☎ 041-920-2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산/ 한성규기자 <hansg@jeonmae.co.kr >

## 예산군 ‘맛남의광장’ 스튜디오 활용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스타트

지역농특산물 활용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

충남 예산군은 SBS ‘맛남의광장’ 스튜디오 및 신협창작소를 기반으로 예산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군에 따르면 지난해 백종원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대보코리아와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SBS ‘맛남의광장’ 프로그램을 유치해 SBS에서 예산전통시장 내 전용 촬영 스튜디오를 설치했으며, 월 2회 출연자와 SBS 방송스텝 등 150여명의 인원이 군에 체류하면서 지역 숙박 및 식당, 상점 활용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SBS 맛남의광장 스튜디오에서는 설 특 집 편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과 국립, 국수, 고향 등 예산의 먹거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군을 찾은 방문객들이 예산도 즐긴다. 음악분수, 예산형새마을 등을 비롯한 대표적인 관광지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시너지 효과까지 거두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예산전통시장은 이번 방송 프로그램 활용과 병행으로 높은 관심을 받으면 서 새롭게 떠오르는 예산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산봉 군수는 “앞으로 예산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예산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예산/ 이준택기자 <chilee@jeonmae.co.kr >

## GH, 국내 최초 중고층 모듈러주택으로 청년 주거부담 해소

GH(사장 이현욱)는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금강공업 컨소시엄이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용인영덕 민간원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 국내 최초, 최고 높이인 13층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공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내 모듈러 건축공법은 차음성, 내화성, 기밀성 등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주로 단층 건물이나 6층 이하 저층에만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층 모듈러 공법의 실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내에 중고층 공공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행북주택 106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

## 확 끌어당기는 프로의 언어

사이트 다카시 지음 | 이정환 옮김 | 200쪽 | 12,800원

**세계의 리더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프로의 언어는 무엇이 다를까?

마틴 루서 킹, 스티브 잡스, 왕가리 마타이, 이나모리 가즈오 등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명연설에 그 비법이 담겨 있다.

논점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방향성을 공유하고, 강한 인상을 남기는 프로의 언어로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www.namubook.co.kr Tel 02-334-3339 Fax 02-334-3318



###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공모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청년들이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취미·관심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공모 사업을 발한다.

공모 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권(대학생, 미취업자 포함)이 용산구인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나 모임이다. 동아리별 인원 제한은 없으며 5개 팀을 모집한다. 단체 1곳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활동 분야는 일자리, 주거, 문화, 취미, 창업, 지역문제 해결 등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청년 시각에서 바라보는 청년 정책 조성과 의견 교류를 위한 모임 등 다양한 내용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정치, 종교, 단순 친목, 영리 목적 등의 동아리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 서초구, 내곡동 현인마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본격 추진

## 서울시 10년만에 실시계획인가 고시...조합설립변경인가 승인

서초구 내곡동 현인마을이 10년만에 친환경 주거단지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현인마을에 친환경 명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가 내곡동 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1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후, 10여년 만이다.

현인마을은 지난 2009년 3월 도시개발 구역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지만, 조합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방치된 건축물과 쓰레기 등으로 마을이 슬럼화되고 노후화돼 10여년간 사업추진이 중단됐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조합장 및 조합위원을 재구성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서초구가 승인한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번 실시계획인가를 확정짓게 됐다.

2011년 개발계획 변경 결정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2종전용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유보해 놓은 것으로 이번 고시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당시 결정 내용 가운데 측량오차를 반영한 면적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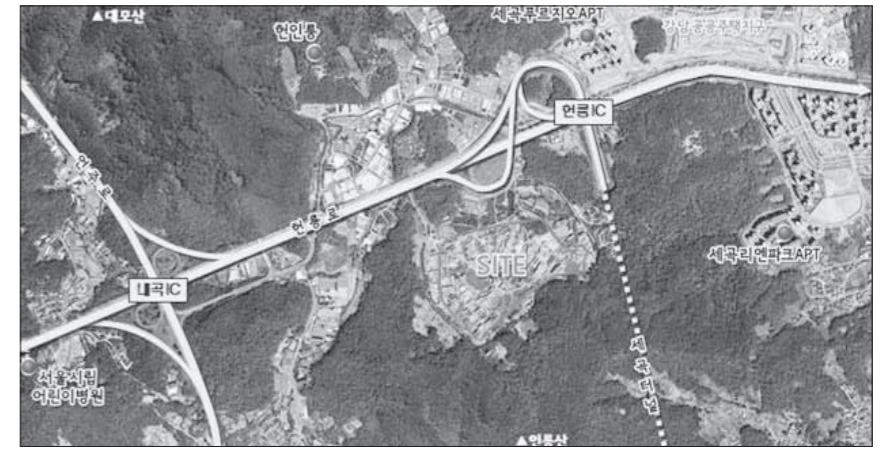
통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추진하며, 현인마을 구역도 저층 주거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다.

현인마을은 서울시 최초 민간추진 한지 방식사업으로 구역 내 조합원은 각종 사업비를 반영한 대지를 환지받게 된다. 주거용지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2층이하 단독주택 건립이, 제2종전용주거지역에는 3층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이 건립예정이다.

이 계획(안)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노후화된 무허가 주택 및 영세 가구공장 등을 정비해 친환경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단지내 쓰레기 등 환경정비가 가능해 다양한 주거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구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실시계획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급변 '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 한지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접수되면 조속한 착공을 목표로 추진력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예정했다.



서울서초구내곡동현인마을개발조합도

(서초구제공)

구청 도시계획과 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서울시 최초의 민간 한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이 10여년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만큼, 이를 동력삼아 현인마을이 최고의 친환경 주

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인마을이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손꼽힐 수 있도록 꼼꼼하고 면밀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2@jeonmae.co.kr)

### 구경 이모저모

#### '전통 장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된장·간장·고추장을 주민들이 직접 담가보는 '전통 장아카데미' 참가자 100명을 1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면역력 증진을 돕는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른 먹거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

한국발효장류진흥협회와 구민 조숙자 명인, 주민공동체 '세자울린장마리'가 강남구보건소(신릉로 688)와 뚝갈한옥여린이도서관(자곡로 7길 3)에서 각각 진행한다.

아카데미는 실습과 이론교육으로 구성된다. ▲3월 우리 전통장의 이해와 장 담그기 ▲4월 장 만들기 ▲7월 별미장 만들기 ▲8월 맛간장 만들기 ▲10월 고추장 담그기 이론·실습 ▲11월 장 나눔·시식 순이다. 구는 이수자 전원에 수료증을 발급하며, 지역간 활동가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전통 장 아카데미는 거주지 또는 생활권이 강남구라면 누구나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ealth.gangnam.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423-7113)로 문의하면 된다.

####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소기업 제품경쟁력을 지원하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구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 제품개발지원센터에서 디자인 컨설팅, 제품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구는 코로나19로 기업경이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으로 확대했다.

참가 기업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필수서류와 함께 한국디자인진흥원 이메일(dkworks@kicp.or.kr)로 제출하면 된다.

#### 행복 100세 위한 자산설계 온라인 강연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학마을도서관에서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로 구성된 '세대별 맞춤형 자산설계' 강연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노년 준비에 도움을 주는 학마을도서관 APPLE 특성과 프로그램으로서 행복한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세대별 자산설계를 주제로 한다.

강연은 각 세대별 연령에 맞는 생애설계와 자산관리를 위해 ▲경제적 적립기(20~50세) ▲수확기(50~70세) ▲인출기(70세~)로 나누어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올바른 실행 방법을 지원해 강사(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와 함께 알아본다.

이번 강연은 3월 5일까지 성인 4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 동영상·블로그 등 'SNS 콘텐츠' 공모전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역의 매력과 공감 스토리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2회 SNS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공모 주제는 '서대문구에서 누리는 소중한 일상'과 '서대문구 매력 찾기'며 동영상과 이미지(블로그, 카드뉴스, 웹툰)로 응모하면 된다. 동영상 장르는 다크, 드라마, 취재,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한이 없다.

창작 콘텐츠를 자신의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공개 설정을 해야 하며 #서대문구SNS콘텐츠공모전이란 해시태그를 달아야 한다.

또한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 설명과 링크 주소 등을 써넣은 뒤 샘플 파일(이미지 분야)과 함께 이메일(besthnm01@sdm.go.kr)로 내야 한다.

## 종로구,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 78% '순항'

### 홈페이지 공약사업 현황 상세히 공개 주민정책평가단 운영...사업 과정에 의견 반영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내건 민선7기 공약사업이 78%의 이행률을 보이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홈페이지 '메니페스토(민선7기 공약)' 코너에 공약사업의 총괄현황, 공약이행현황, 평가,예산 등으로 구분해 공개하면서 특히 공약이행현황의 경우 관리카드 형태로 작성하고 주민 이해를 돕고자 현황도

면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첨부해 분기별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4분기 기준 공약이행현황에 따르면 86개 공약사업 중 67건(77.9%)이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구는 '필운대로 보행환경 개선' 등 나머지 19건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주민정책평가단 '종로사랑87'을 선별하고 구정 운영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종로사랑87'은 구의 법정동이자 87개라는

## '동대문 오랑' 개관...청량리역 광장에 청년허브센터 조성

### 청년 정보·종합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청년 활동의 새로운 거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다양한 청년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동북권 대표 청년 공간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이하 동대문 오랑)을 개관했다.

구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많은 대학이 위치해 있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인구가 많지만 청년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 청년청과 국가철도공단, 한화여사(주)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교통의 요지인 청량리역 광장(왕산로 210)에 동대문 오랑을 조성했다. 다른 오랑과 달리 공간 발발 및 설계, 공사 등 모든 과정에 구가 직접 참여했다.

동대문 오랑은 기존 건물 일부 임대 형태가 아닌 단독 건물로 마련됐다. 연면적 480.71㎡에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북카페와 소규모 네트워크 라운지, 공유주방, 영영사무실, 2층은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무 공간과 유튜브 채널 운영 공간, 회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등을 갖췄고 3층은 최대 4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야외 휴게 공간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만 운영했으나 사회



서울청년센터동대문오랑

(동대문구제공)

적 거리두기 지침이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1:1 상담실과 1인 창업실 내 비대면 면접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설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동대문 오랑에는 청년정책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취업·경제 문제, 주거 문제, 심리적 문제 등 청년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며, 이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사업을 연계해 청년들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망 형성에 지원, 사업 운영 중 드러나는 청년의 욕구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년들의 활동과 휴식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공간 제공,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개관식 대신 시설 소개, 유덕열 구청장 및 청년대표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개관 기념 영상을 제작해 3월 중 DBS 동대문구청 인터넷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 성동구, 필수노동자 정책기반 마련 '팔 걷었다'

### 실태조사·지원 정책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집중 논의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최종보고회에는 정원오 구청장, 유보라 부구청장을 비롯 용역연구책임자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윤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노동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해 필수노동자 연구를 체계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주요 국가별 필수노동자 정의 및 범주 검토·분석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별 필수노동자 지원 사례 정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검토 범위 선정, 성동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업종별 근로실태 및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등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정했다.

연구를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OECD, UNICEF 등의 선행연구 및 국제기구 보고서 조사 및 검토 등 해외사례를 분석과 함께 성동구에서 근무하는 519명의 돌봄, 보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요약보호사, 보육교사 등 소수 인력 대상

심층면접 Focus Group Interview(FGI)등 양적·질적 방법론을 병행했다.

연구진 측은 "필수노동자 정책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는 필수노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단 대응 노동정책 전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체계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내용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완료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지원방안은 관계자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 송파구, 위례동 안내표시물 제막식 개최

### 역사·문화·예술의 흐름이 모이는 위례의 도시특징 담아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5일 오후 4시 위례서로와 위례중앙로가 교차하는 위례24단지 사거리 앞에서 '위례동 안내표시물 제막식'을 개최한다.

2015년 신설된 행정구역인 송파구 위례동은 거듭된 도시인프라 개발과 활발한 인구 유입으로 현재 구의 4.7%인 3만1000여명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다. 그러나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로 송파·하남·성남 세 지역이 맞닿아 있어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구는 위례동 전체 지역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역동적인 발전을 기원하고자 행정구역 초입에 안내표시물을 제작·설치했다. 높이 4.4~6m, 폭 0.4~0.8m 지주타인의 스틸 조형물 4개로 구성된 안내표시물은 역사·문화·예술의 흐름이 모이는 위례의 도시특징을 담았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성수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주민자치회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디자인과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등 '위례동 안내표시물'의 제작·설치에 관한 경과를 보고한 후 기념사와 제막식이 이어



위례동 안내표시물

(송파구제공)

진다. 박 구청장은 "안내표시물의 설치와 함께 보다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송파·하남·성남 3개 지자체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북위례 아파트 입주, 수변공원 조성, 위례 신사선과 트램 개통 등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9년 12월 인근 지자체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출범시켜 지역발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위례파출소가 신설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향후 송파대교를 위례 휴먼리노와 남한산성까지 연결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 중구,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 총 1만 4092건 전수조사 후 소유주 대신 등기축택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사업'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면적이 '평'단위로 기재돼 있는 건물등기부를 조사해 건축물대장의 면적단위를 제곱미터(m<sup>2</sup>)로 일치시켜 등기축택(소유주 대신 법인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축택하여 등기)을 통한 면적환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토지 및 건물의 계량단위는 종전 계량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983년 1월 1일 까지 일괄적으로 등기축택할 계획이다. 선제적 등기축택으로 주민들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줄고 비용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그간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통해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했고,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건축물대장은 일괄적으로 면적환산처리가 완료되었으나, 건물등기부의 경우 직권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면적환산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면적단위 차 불일치할 경우 재산관리가 불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후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내고 위임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건축물대장이 면적환산 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등기부 총 1만 4092건을 찾아내 '평'단위 등재 여부를 확인, 2023년까지 일괄적으로 등기축택할 계획이다. 선제적 등기축택으로 주민들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줄고 비용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그간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통해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했고,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건축물대장은 일괄적으로 면적환산처리가 완료되었으나, 건물등기부의 경우 직권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면적환산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 강북구, IT 소외계층에 컴퓨터 100대 무상보급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경수)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컴퓨터를 무상 보급하는 IT 희망나눔 사업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에서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컴퓨터의 사양을 단계로 높여 정보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이다. 올해 보급물량은 100대로 개인에게 60대, 사회복지시설에 40대가 전달될 예정이다. 컴퓨터 본체와 키보드, 마우스가 제공된다.

컴퓨터는 CPU Intel·Core i3(3.1GHz), 메모리 4GB, HDD 500GB 이상의 사양이다.

보급 후 1년간 구청 유지보수팀이 무상 방문수리에 나설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간 제한 없이 무상으로 PC 점검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접수는 내달 1일부터 받으며 대상자 자격확인을 거쳐 최종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주민은 구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경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경제·신체적 요인으로 정보통신서비스 활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IT 희망나눔 사업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 양천구, 전국 최초 건강·힐링·복지 원스톱 '건강힐링문화관'

다양한 힐링 문화시설인 힐링치유방·명상실·힐링쉼터 등 조성  
힐링 가드닝·음악명상 등 통합 힐링 서비스제공  
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모자건강증진센터·실내체육관도 한곳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전국 최초 건강·힐링·복지 원스톱 복합시설인 '건강힐링문화관'을 개관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힐링문화관(남부순환로83길 54)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전체면적 6999.84㎡ 규모로, 신정 1-1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됐으며, 건강힐링센터를 비롯한 실내체육관, 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조성됐다.

2층과 3층에 조성된 건강힐링센터에서는 마음의 힐링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만날 수 있다. 힐링가드닝, 필로테라피, 무지사워 등 누구나 쉽게 힐링문화를 체험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민 스스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관전 시범 운영됐던 '심잉불명상' 사업은 이완을 유도하는 주파수를 가지

고 있는 심잉불과 함께 명상을 진행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이 되는 경험이 새로웠다. 평을 받기도 했다.

편백향이 가득한 힐링치유방은 편백 쪽욕기(건식), 편백 사우나(건식), 황토 매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의 지친 몸을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편백 아로마 향을 느끼며 족욕과 사우나를 통해 신선대사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 주민의 관심이 뜨겁다.

1층과 2층에는 각각 어린이집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그리고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으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임신준비부터 출산 전후 필요한 정보 제공과 상담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건강증진센터



건강힐링문화관 개관에 따른 제작사. <양천구 제공>

는 건강힐링문화관에 자리 잡은 만큼 지자체 유일의 건강과 힐링이 결합된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실내체육관이 마련되어 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농구, 배드민턴, 라인댄스 등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며, 당분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해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건강힐링문화관의 개관으로 주민들이 한 곳에서 건강·힐링·복지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지역의 건강과 문화복지 및 힐링의 전진화를 실현할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양천구민의 힐링문화를 이끌어 나갈 건강힐링복지를 선도하는 대표적 시군수해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 강서구 '현장에서 내 땅 경제정보 제공' 확대 시행

기존 131필지에서 237필지로 확대 운영  
스마트폰만 있으면 QR코드 활용 현장에서 내 땅 경제 확인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스마트폰으로 내 땅의 정확한 경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문화예술포럼 이 서비스는 최근 5년간 등록전환이나 토지분할 등 측량을 통해 경계가 결정된 131필지에 대한 경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구에 토지이동 신청이 접수된 필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

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화곡동, 마곡동 등 12개 동 106필지의 경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자료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구뿐만 아니라 토지주 등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싶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결과 106필지의 정보를 더해 총 237필지의 경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건물에 있는 필지에는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을 부착했으며,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입력된 지상경계점등록부 자료를 연결돼 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토지 경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 땅 경제정보 제공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2분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윤미 기자 (kym@jeonmae.co.kr)

# 성북구립미술관, 문체부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우수' 기관 선정

5개 평가범주 대부분 높은 평가점수·4개 지표에서 '만점'...자치구 최초 건립 미술관으로 '고품격 전시' 선보여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에 위치한 성북구립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공립미술관 평가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55개 공립미술관을 평가 대상으로 고시하고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을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14개 지표)에서 이루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된 평가 심사에서 성북구립미술관은 분야별 고른 성과를 보였다. 성북구립미술관은 전국 총점평균(77.76)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거의 대부분의 범주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전문역량 ▲운영 계획 이해도 ▲연구 및 아카이빙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 지표에서 각각 만점(100)을, 그 밖에 ▲교육(97.92) ▲전시(91.67) 지표 등에서 높은 점수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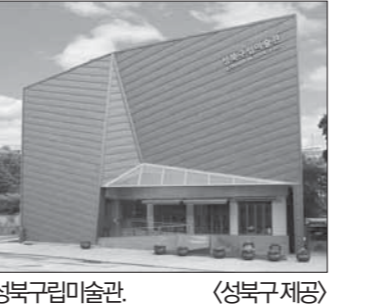
그러나 평가의견으로 소장품 수집, 분관 화제인력 충원, 미술관 1층 공간 확보 등을 지적하며, 이번 평가

결과를 공립미술관 운영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2009년 자치구 최초로 건립된 성북구립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동부대 수많은 작가들이 창작의 고향으로 뿌리를 내린 성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맥을 이어가고 있다.

성북구립미술관은 성북 지역에 시대를 공유하며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계를 이끌어온 예술가들의 기획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3월부터는 '땅의 소리: 김승영'展(성북구립미술관을 비롯해 2020년 타계한 한국의 대표 현대조각가 최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 제공>

만린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해와 달: 일월'展(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등 다양한 봄 기획전시가 진행된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 강동구, 유사 복지공동체 6개→2개로 통합 운영

컨트롤타워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취약가구 발굴 강화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이달부터 효율적인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주도 유사 중복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4일 구에 따르면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6개(명예사회복지공무원, 나눔 이웃, 나눔가게, 이웃살피미, 이웃자킴

이, 시민찾들미)을 주요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구별해 취약가구 발굴·신고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취약가구 지원과 모니터링은 '이웃살피미'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복지공동체의 성공적 통합·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밀집도 및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강일동, 고덕2동, 전호2동, 암사1동, 성내2동 등 5개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시범동에서는 동별 4~6명의 우리 동네돌봄단을 배치하여 취약가구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운영한다. 생활업종 종사자 신규 참여자를 발굴해 현재 670명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최대 17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 신고, 제보활동 등을 수행하며, 공동주택·오피스텔·고시원·모텔관리자, 집배원, 가스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부동산 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 동작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지남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체예산 지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매년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체예산 8000만원을 투입, 친환경 전기자동차 50대의 구매 지원을 실시,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대상 차량 구매자로 시 지원신청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 까지 동작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포함), 법인, 단체 등이며 1인(사) 1대로 한정하고, 금년 예산편성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대상 차종은 전기승용차 12개 회사

46종, 전기화물차 9개 회사 13종 등 총 17개 회사 59종으로, 환경부 제공해져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1대 당 구비 160만원을 지원해 국·시·포함, 승용차의 경우는 최대 1360만원, 화물차는 지난해보다 약 410만원이 증가한 최대 33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2년 간 차량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며, 자동차

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동작구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 맑은환경과(☎02-820-9855 / 노랑진로 74. 3층)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 은평구 '2021년 은평형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형단보다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호평...확대 추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미래혁신기술을 도입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중소·벤처기업에게는 기술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은평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테스트베드 사업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신기술(제품)을 발굴해 지역내 공공시설 등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다.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전문연구기관의 추천, 기술박람회 참여, 아이디어 제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혁신기술을 발굴한 후 소관부서의 기술검토 및 미래혁신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구는 2018년 테스트베드 사업형 관련 연구·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신기술(제품)을 발굴해 지역내 공공시설 등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다.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와 같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모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 센터 (sangkwon.mapo.go.kr)'는 거주 및 유동인구, 지역별 상가 임대료,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 마포구, 빅데이터 활용 상권 찾기 서비스

최신 데이터 활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 인천경제청, 맞춤형 IR 전략으로 투자유치 총력

## 안심식당 사업 지속 추진

인천 부평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안심식당'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선정된 업소에 '안심식당' 스티커를 배부하고 추후 테이블 가림막과 종이수저, 텀어막는 용기세트(집게·국자) 등을 인천시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 업소는 구청 위생과(☎ 509-6707)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부평구지부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 팩스(☎ 509-7670)나 이메일(grace77@korea.kr)로도 제출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구 홈페이지 부평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 대면·비대면 혼합 '투트랙' 마케팅으로 해외 12회·국내 16회 유치활동 웨비나·1대1 회상상담 등 자체 온·오프라인 투자유치설명회 지속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대면과 비대면의 방안을 혼합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IR)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투자유치 IR계획을 수립하며 작년 실시한 투자유치 전략용역을 통해 도출된 3대 핵심유치 산업인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물류를 중점 타깃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투 트랙 마케팅 전략으로 해외 12회, 국내 16회 등 모두 28회의 기업 유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먼저 상반기에는 코로나 19의 상황을 감안해 기존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의 IR 추진에 집중할 계획으로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4월), 미국 Bio Digital(6월) 등의 세계적인 유력 전시회에 참여해 참가 기업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관심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의 경우 백신 접종 등에 따른 코로나19의 안정화가 전망됨에 따라 기존 대면방식의 투자유치 IR 활동을 통해 두바이 GITEX(10월), 미국 AAPEX(11월) 등 국내·외 유력 전시회에 참여해 타깃 기업에 대한 1대 1 상담을 추진하고 외국 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투자

설명회 개최, 협력도시 연계 글로벌 기업 방문 등의 추진을 통해 신규 잠재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웨비나(웹세미나), 1대 1 회상상담 등을 포함한 인천경제청만의 자체 온·오프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이달 시범적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ICT융합, 부품·소재, 유통물류, 관광레저, 교육, 유통물류, 의료, 금융 부문의 발표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링크드인에 게시함으로써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IFEZ의 투자 강점 등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정경원 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신규 투자자 발굴이 어려워짐을 감안, 지난해 10월 문을 연 IFEZ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투자 상담을 더욱 활성화하고 ▲입주기업(20개) 성공 사례집 발간 ▲투자자 맞춤형 웹페이지 개선 ▲기업체 협의회 등을 구성해 증액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주민생활환경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 선정

인천 미추홀구가 행정안전부 '2021년 주민생활 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

구는 '따뜻한 복지가 되어야 행복'을 슬로건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등을 제시, 최대 지원금에 해당하는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21개동 중 5개동에 시범적으로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시작했고,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동별 상황에 맞춘 마을복지계획 수립, 생애전환기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진행, 양육모임 지원, 노숙인 거리상담 강화 및 세탁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식사제공 등도 운영한다.

김정식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풀-KEEP-IR과 함께하는 위기가정 발굴 사업 등을 병행 지원,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마을복지 계획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민간전문가 연속지원 사업 2년 연속 선정

인천 서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1년 민간전문가 연속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인천 최초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관련 사업을 아산시켜 추진해온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원을 받게 됐다.

전액 국비로 4000만 원이 지원되며 1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민간전문가제도와 관련한 예산 절감 효과와 제도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에코시티'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 51개 학교에 교육경비 14억3900만원 지원

인천 중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보편적 교육실현을 위해 51개교 78개 사업에 14억3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분야는 ▲유치원 교실환경 개선(12개원, 12개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25개교, 25개 사업)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27개교, 36개 사업) ▲신설학교 개교경비(4개교, 5개사업) 등 모두 78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영종국제도시 내 학생(아동)수 증가에 따라 운동장·도서관·음악실·과학실 등 특별실 구축과 관련된 신설학교 개교경비를 지원한다. 대상학교는 지난해 개교한 별빛초를 비롯해 올해 3월 개교하는 하늘중과 중산고 등이다.

지난 2019년 개교한 중산중도 신설학교 관점에서 특별실(공용멀티미디어실·음악실·컴퓨터실 등)의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

인천 계양구의회는 4일 의회 의정실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실시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결산감사 위원은 총 4명으로 이충호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최호규·권나영·정진영 세 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감사는 내달 7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계양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채무 등 지난 1년간 집행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합리성 등을 살펴본 후 문제제기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감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유순 의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세입·세출 결과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은 요하는 사항은 대안을 제시해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 품격있는 도시 건설”

## 인천시종합건설본부, 공공복리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물 건립 추진 인천·쾌적한 도로환경 유지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보수·보강 박차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공공복리를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물 건립과 관련, 출산 및 보육, 공립 차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기반 시설 확충으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8월 혁신육아종합센터를 시작으로 같은 달 인천시립요양원, 9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착공에 들어가고, 오는 5월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자연정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건설본부는 스포츠시설 확충으로 보다 나은 체육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6월 동춘 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 ▲8월 문학경기장 개·보수 ▲8월 인천시 선수단 숙소 ▲8월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를 착공하고, 오는

3~4월에 개최하고, 지하차도로 인한 갈등 최소화를 위해 올 10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국지도 98호선(도개-마천) 도로개설공사 착공 지연과 관련, 총사업비가 당초 1051억5000만 원이었으나, 536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예비타당성 노선 대비 실시설계 시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재검토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수월, 올 7월 착공에 이어 오는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공 본부장은 "이양지하차도 건설공사 비용분담 재협약과 관련, 총사업비가 당초 241억 원에서 공사비 444억 원·감리비 26억 원·시설부대비 1억 원 등 771억 원으로 변경 증가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비용분담에 따른 재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타당성평가 과업 진행 중으로 1월에 완료 뒤 협의를 진행,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인 코로나19로 어려운 관내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 장보기가 성료됐다.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제공>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전통시장 이용 장보기' 성료

목표 160% 초과 1300여만원 구매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중구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장보기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결과 임·직원 161명의 높은 참여로 구매금액이 1300여만 원에 달해 당초 목표액의 80%를 넘어 160% 초과 달성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공단은 구매 목표액 달성 관련 연찬회를 최근 공단 본부에서 신포국제시장·신

흥시장·인천종합어시장 상인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원문로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는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를 초과 달성해 기쁘다"며 "실제로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 팍팍 밀어드립니다"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인천 연수구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고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적극적인 공직 사회로의 변화와 구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적극행정 추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우선 총괄 부서를 조직 운영하고 실행 계획, 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기별 적극행정 공무원도 선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구민 누구

## 웅진군, 1미터 이상 농지 절·성토시 "반드시 사전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인천 웅진군에서 1미터 이상 농지 절·성토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지난달 2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상의 절·성토행위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됨을 공표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2미터 이내의 절·성토행위는 인접 토지의 관계·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토지구와 개발업자는 무분별한 성토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군은 우량 농지에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절·성토·옹벽 설치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나선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 수소산업 기반 구축 업무협약 <上>



박남춘 시장은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인천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 지원을 건의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행·재정적 지원 박차

기업도 수소산업 기반구축 적극 투자 박남춘 시장, 총리 등에 협력 건의

인천시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앞으로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수소자동차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서구는 수소산업 기반의 구축과 환경개선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주)는 수소경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차 산업 육성 및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기반구축 실증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SK E&S는 인천시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 인천시의회 '인천 섬 관광활성화' 힘 보탠다

섬 생태·지질연구회 전문가초청 간담회 정책제언 위한 활동방향 심도깊은 논의

인천시의회 '인천 섬 생태 및 지질연구회(인천섬연구회)'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섬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인천 섬의 생태 및 지질학적 가치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기관인 (사)인천섬유산연구원 김기룡 소장을 초청해 인천 섬의 현 상황을 청취하고 정책 제언을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천섬연구회 김병기 대표 의원은 "작년 연구 활동을 통해 백령·대청도가 최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지질 자원에 대한 보존이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특별법정지원금 승인신청

산자부에 10억3700만원

인천 동구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관련 특별법정지원금 30억5000만 원 중 10억3700만 원에 해당하는 5건의 사업을 산업자원통신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11월18일 체결된 동구 수소연료전지 민·관 합의를 따라 법정특별지원금에 대한 집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공무원·구의원·발전소·주민대표 1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지원금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

구는 통림아파트 옆 섬터 조성, 전 구민 마스크 지급 사업 등 민관이 제안한 사업 4건과 구에서 제안한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리모델링사업 등 총 10억3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5건의 사업계획을 결정, 지난해 말 산업자원통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구는 이번엔 선정하지 못한 나머지 사업비 약 19억68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달 중 추가로 사업계획을 선정, 5월 중 예정된 지원금 승인에 신청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발전소법에 따른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사업 등을 협의회 위원 및 주민대표와 공개한 행성을 토대로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굴해 나가겠다"며 "동구 주민에게 널리 공감 받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발전소와 지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논산시, 내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강원 속초시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차매인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소득기준(중위소득120%이하)에 충족하면 되며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자격인사, 환자명의 통장사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치매와 처방전, 환자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th@jeonmae.co.kr>

## 목표액 6938억 설정...장·단기 로드맵 수립

### 생활 SOC 복합화·도시재생 등 역점 추진

충남 논산시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를 6938억원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시청 회의실에서 행정신 시장 의 주재로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전략 보고회를 실시하고 성공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논산형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특히 2050탄소중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논산시대를 열기 위한 장·단기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

이다.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생활 SOC 복합화 및 도시재생, 탐정호 웰니스파크 조성(대동누리 청년 군자마당),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황 시장은 "올해 역점 사업 추진방향은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부응하는

논산형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문화·복지·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유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이뤄낸 많은 성과는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사명감으로 노력해온 직원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계속해서 혁신적인 지역성장 기반 구축 및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및 전략적인 국·비 확보 대책 수립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달의 공모 알림' 운영을 통해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분석 및 시에 적합한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대응하고 있으며 각종 기본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한다는 방침이다.

논산/ 박석희기자 <psh@jeonmae.co.kr>

## 시니어 맞춤형 직업교육 참여자 모집

경기 의정부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의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만 55세 이상부터 만 65세 이하 경비직 취업희망자로 취업 의지 등을 심사해 15명을 선별할 계획이다.

선별된 교육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총 5일간 교육에 참여해 3일간은 경비 관련 시설경비 실무, 신변 보호 및 직업윤리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을 취득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 일자리 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점검

경기 파주시는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사용 실태 점검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시설물이며 총 87개소가 대상이다. 이들 대상 중 지역자장고는 58개소, 비닐하우스는 22개소, 다점보온케튼은 2개소, 난방기(온풍기)는 57개소다.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원받은 농업시설물에 대한 정상 사용 및 가동 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지원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방치, 양도, 목적 외 사용 등 보조사업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파주/ 김승기기자 <sgkim@jeonmae.co.kr>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200대 지원

충남 서산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200대를 지원한다. 4월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본예산 18억 원을 편성해 1000여 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120% 증액된 35억 원을 편성해 2200여 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화(1833-7436)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주소지별 접수일을 나눠 서산종합운동장 남문 주차장에서 받는다. ▲8일 대산, 자곡, 성연 ▲9일 인지, 부석, 부촌 ▲10일 팔봉, 동문1, 동문2 ▲11일 음남, 수석, 석남 ▲12일 운산, 해미, 고북이다.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3.5t 이상, 건설기계 구분에 따라 각각 최대 300만원, 배기량별 440~3000만원, 4000만원이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 응주폐해 예방사업 추진

강원 삼척시는 '2021년 응주폐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시의 응주 현황은 월간 응주율과 고위험 응주를 모두 강연도 평균보다 높은 상태로, 특히 40대에서 응주율이 가장 높다.

이에 시는 응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애주기 대상별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우선 응주폐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등록 관리하기 위해 고위험군 대상 예방 교육과 절주상담 및 추구관리, 자가 이원법 교육,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 선별검사(AUDIT)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응주자 및 가족, 알코올 의존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절주상담과 건전한 응주법, 응주자지원 등을 진행한다. 더불어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은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청소년은 청소년 응주 문제 정도 측정 및 상담을 통해 술에 대한 이해와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억5천만원 투입

강원 양양군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군 지역 내 유형문화재는 총 38점으로 국보1점, 보물9점 등 국가지정문화재 총 18점, 도지정문화재 총 18점이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다.

올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도비 포함 총 9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문화재 발굴조사 1건을 실시하고, 문화재 정밀실측 사업으로 명주사 부도군에 대해 추진한다.

또한 낙산사와 하조대의 재산총량 등 병충해 방지사업과 명주사 요사채 보수, 진전사지 범당 단청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경기 포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자체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환경 결의대회'를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포천상공회의소 제공>

## 포천상의, 道 공공기관 이전 환경 결의

### "도경제과학진흥원 시로 선정돼야"

경기 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기업인 자체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환경 결의대회'를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논의해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전달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이번 결의한 내용은 "그동안 수도권중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시로 선정돼야 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계획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윤러 "시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래서 도경제과 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가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공공기관중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시로 선정돼야 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jeonmae.co.kr>

# 경기 광주시, 道 공공기관 유치 본격돌입

## 추진단 구성 세부계획 추진 등 총력

### 지역격차 해소 위해 이전 적극 지지

경기 광주시가 '광주시 공공기관 이전유치 추진단'을 출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준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유치총괄반, 유치실행반, 유치지원반, 민간협력반, 홍보대응반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이전부지 확보, 지역사회 공헌화, 홍보활동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신동현 시장은 "광주시는 1975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0년간 각종 중점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억제돼 왔다"며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자원의 도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광주/ 도윤성기자 <ngoa21@jeonmae.co.kr>

## 군포시, 탄소중립 실천 앞장선다

### 직업 탄소중립 실천교육 실시

### 공직자 인식 전환·역할 제고

경기 군포시가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직원들을 상대로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전환 필요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외 실정사례, 지역중심의 실천모델 창출 방안 등이 다뤄졌다.

강사로서 나선 한국환경공단 안성준 차장은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로 파악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한국의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등을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또 안 차장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토대로 지자체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주력사업과 인구구조, 지리적 특성 등을 살려서 민간부문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교육은 한대희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한 시장은 평소 "공직사회가 탄소문제, 환경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경기 군포시 공무원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받고 있다. <군포시 제공>

온 측면이 있다"며 "공직사회부터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등 시도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 강원교육청,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 '화제'...셋째 이상 입학 준비물 10만원 지원

강원교육청은 4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이상 다자녀 학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은 모두를 위한 교육 3기 공약사업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는 강원교육청의 차별화된 사업이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이 각 급학교(초·중·고·특수학교) 1학년이 입학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입학한 학교에서 배부되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봉주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무, 가방, 학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따른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서천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

충남 서천군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1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서천을 군사거리 일원 '교촌 새마을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교촌마을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낡고 좁은 골목길이 많은 경사지형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87.3%, 공·폐가 비율이 28.1%로 주거환경이 매우

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교육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 서천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4년간 ▲안전한 마을길 조성 ▲도시가스 분관 설치 ▲하수관거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 김동일 보령시장, 해방기 주요 시설 점검

### 코로나19 방역·대단위 사업장 점검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주요 대단위 사업장과 시설물 1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해방기 공사 재개 시기에 맞춘 사업장별 안전관리 실태와 코로나 19 방역상황 예방 및 대응태세 점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 시장은 점검 첫날인 4일에는 코로나 19 격리시설로 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 점검을 시작으로 화강소하천 정비공사 현장과 국도 40호 성주 우회도로 건설현장 등 9개 주요시설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화강소하천 정비사업은 용전을 화강소하천 1.78km 정비와 교량 3개소 설치에 4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완공예정이다. 또한 남포와 미산을 연결하는 성주우회도로(국도 40호) 건설공사는 5.28km 구간

에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이날 점검에서는 구간 내 옥동터널(1.0km) 굴착현장 등을 둘러보며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격리자 수용 시설로 운영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의 방역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 추산된 화취 재배 농가를 방문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피해 농민을 위로하며 앞으로 품목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석탄박물관 ▲보령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성주사지 홍보관 ▲장라 농공단지 ▲보령경찰서 청사신축현장 등을 방문해 추락 방지 안전간판 공사 설치 여부, 근로자 마스크 착용 및 외국인 근로자 보일 체크 등을 점검했다. 보령/ 이진영기자 <leegy@jeonmae.co.kr>

##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동발지기 활동가' 위촉

### 8명 선발 지역사업 적극 동참

강원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4월 2021년도 정선군 도시재생 사업의 주축이 되는 '동발지기 활동가'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활동가 대표 1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활동가들은 비대면 화상으로 위촉식에 참석할 가운데 위촉된 동발지기 활동가들은 지원자 74명중 최종 8명의 동발지기 활동가를 선발했다.

동발지기 활동가는 지난 2017년부터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고한, 사북, 남면, 신평 지역에 인재를 육성하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4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과정, 심화과정, 보수과정을 통해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요령과 마을기반 사업 발굴, 실행을 위한 기술들을 갖추고, 활동가로서 역량강

화를 위해 센터사업을 비롯한 지역사업에 적극 동참해 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생역량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동발지기 활동가들은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 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및 해설학교 등에 참여해 주민들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해설학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윤구 센터장은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번 위촉된 도시재생 동발지기 활동가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정선군의 도시재생사업에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져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 기대한다"며 "센터에서도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 북부산림청, 여름 집중호우·태풍 피해지 복구 추진

### 예산 75억 투입 6월 말까지 마무리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관내 산림피해지 복구를 이날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피해지는 총 79개소이다. 신속·정확한 복구를 위해 지난해 설계 조기 착수를 시점으로 산림피해의 시급성 등을 고려, 순차적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민가, 산업시설 주변 위주로 19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복구 완료했다.

올해는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서울·경기, 인천, 강원 영서) 경차지 인근지역, 일반 산지 등 나머지 60개소를 복구함으로써 산내태 피해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 3월 복수현 북부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비롯해 산림기술사, 산림조합 등 전문가를 초빙해 시공기술 노하우 교류를 통해 현장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췄다.

산림복구사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다가를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산내태피해지 전 개소(60개소)에 대한 사업을 이달 중순까지 착공하고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수현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내태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해 추가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대책과 응급복구 대응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연매출 400억 달성

### 대외마케팅도 3년 연속 1위 평가

충남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가 연매출 400억 원을 달성하고 대외마케팅 3년 연속 1위 평가를 받는 등 선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산지유통센터는 지난 2018년 군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현재 요광리 부지로 확장 이전하고 현장 자동화레이블 시스템, 자동포장 삼면포장기 등을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했다.

농산물의 고품질에도 도입해 품질 우선의 농산물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껌 및 포함 92개 품목 400여 가지 상품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는 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지원사업(사업비 40억 원)을 추진, 시설을 대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금산/ 황산동기자 <n04570@jeonmae.co.kr>

이러한 활동으로 만인산농협은 전국 400여개의 산지유통센터 중 농협 중 1위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농협중앙회로부터 3년 연속 농산물 대외마케팅 연도대상을 수상했다.

박기범 산지유통센터장은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비대면 판매 확대와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 상품화를 통해 매출과 사업 내실을 크게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순주 조합장은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국내 최고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발돋움 했으며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금산 농민들의 자부심"이라며 "올해 500억 원 이상 매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청군, 공공일자리 2천개 이상 만든다

### 5회 시니어추향 선발대회 5월 1일에

제5회 시니어추향 선발대회가 남원 공헌투원 안원장에서 오는 5월 1일 개최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대회 개최를 두고 고민이 많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하에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6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개성적인 자아실현의 기회를 통해 신노년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대회인 만큼, 주최 측은 사회적거리두기 오래동안 자아실현을 위한 꿈과 열정을 어르신들을 위해 꿈과 희망을 드리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대회는 참가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심사결과 개별통보, 본선대회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9일까지로 접수처는 남원시노인복지관이다.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 희망문화놀이터 연말까지 운영

전남 광양시 희망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 독서, 영화, 음악 등 매달 주제를 정하고 관련 행사로 꾸미는 '희망문화놀이터'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에는 '독서 토크쇼'를 주제로 '과학이 놀자' 행사를 오는 21~27일 일주일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 어린이 100명에게 태양계 북극대, 행성 모형 만들기, 팽귄 만들기 등 과학체험 키트 3종을 미리 제공하고 집에서 영상을 보며 따라 하도록 지원한다.

동영상은 희망도서관 인스타그램(@humang-lib)을 통해 배포되며 완성작품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하면 1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제공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광양희망도서관(☎061-797-4230)에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경북 경산시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금액이(주책처리 344만/동, 지붕개량 300만/동, 비주책처리 200만이하 전액지원) 작년보다 일부 상향했으며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는 주책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해준다.

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173동, 지붕개량 14동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산/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 국립 한국 섬 진흥원 유치 공모 도전 공식화

경남 남해군이 행정안전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 섬 진흥원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4일 한국 섬 진흥원 유치를 공식화하고 공모 절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섬 진흥원을 유치하는 지역은 앞으로 5년 간 40억 원의 생산발전효과와 274억 원의 부가치 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자체'로 칭칭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한국 섬 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부합한다는 평가다.

한국 섬 진흥원은 3실 8개팀으로 5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8월까지 설립지역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내달 중 설립지역 발표, 5월중 재단설립, 8월중 본격 근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남해/ 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 전사관 해설사 10명 모집 내달 7~9일

경남 함양군향토문화연구소모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10일부터 개최되는 2021함양군향토문화연구소 전사관 해설사 10명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능력자, 수화통역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보유자 등은 우대한다.

응시희망자는 함양군향토문화연구소 누리집에서 응시원서 등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엑스포조직위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이다.

침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 노인일자리사업 일제히 개시

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수행기관별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제히 개시했다.

이번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는 1065명으로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운영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고 종사자 및 참여자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참여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안전 및 활동수칙,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를 위한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10개월 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예방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며 "수행기관과 어르신들께서는 방역수칙과 안전을 철저히 준수해 활동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령/ 최판규기자 <chpag@jeonmae.co.kr>

### 사회적기업·청년일자리사업 등 주력 추진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 72.6%...도내 최고

경남 산청군이 올해 공공분야 일자리 2000개 이상을 창출하기로 하고 청년을 우선 채용하는 등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장년층 일자리에선 향노화관광을 접목한 동의보감촌 운영사업 등 군의 핵심

정책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기업 등에 50여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40여명 ▲공공일자리사업으로 3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 공공분야 직접일자리 2000개 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방산업단지 기업유치, 화천농공단지 공장 신축, 산청읍 옥산지구 아파트 건설 등 민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도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서 도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은 72.6%로 지난 2019년보다 1.5% 상승한 수치다.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73.6%로 도내 최고이며 해당 수치는 지난 2017년 70.5%, 2018년 71.7%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군은 최근 지속적인 고용률 상승 요인으로 공공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손꼽았다.

자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 명품산청만들기사업은 문화, 관광, 복지 분야 등에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년활력,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했다.

산청/ 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경북 청도군이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생산한 전통김치 '망깊은 김치'가 미국 LA로 첫 수출됐다. <청도군 제공>

### 청도군 '망깊은 김치' 美 시장 첫 진출

40피트 1컨테이너 2160kg 규모

경북 청도군이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생산한 전통김치 '망깊은 김치'가 미국 LA로 첫 수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일 금천면 임당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주)세인푸드에서 수출 선적

식을 가졌다.

(주)세인푸드는 지난 2016년 '재은 참 김치'라는 브랜드로 유럽시장에 진출했다고 최근 코로나19로 한국산 김치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망깊은 김치' 브랜드를 새로 론칭해 미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날 수출을 위해 선적된 김치는 40피트

컨테이너(2160kg) 규모로 포키김치, 갓김치, 총각김치의 다양한 구성으로 이뤄져 있어 현지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꾸준한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승용 군수는 "군에서 생산한 (주)세인푸드의 '망깊은 김치' 수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주력상품으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청도/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 하동군, 내년 국도비 예산 2500억 확보 시동

### 윤상기 군수 주재 확대간담회의...국고예산 확보·재정신속진행 적극 추진

당초예산 8000억원대를 돌파한 경남 하동군이 내년도 국·도비 예산 2500억원 확보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4일 군은 전남 윤상기 군수 주재 확대 간담회의를 열고 2022년 국고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목표를 올해 예산 확보액 2205억원보다 235억원 늘어난 2500억원으로 잡았다.

분야별 목표액은 ▲국고보조금이 올해 1162억원보다 16.7% 늘어난 1366억원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33억원보다 18.6% 증액된 279억원 ▲기금보조금이 234억원보다 5.7% 늘어난 249억원 ▲도비보조금이 515억원보다 7.0% 증액된 551억원이다.

군은 이를 위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부처별 사업 설명 등 예산 신청부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전략적·탄력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군수를 총괄지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고 확보 추진단을 꾸려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군은 또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축집행 목표액을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행안부 설정목표 55.1%보다 5% 추가상향 설정한 60% 3833억원으로 잡고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상기 군수는 이와관련 "지역경제 소비·투자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 의령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한다

경남 의령군은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가

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협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미 가입한 농업인은 보험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재가입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일반 1

형 10만1000원부터 산재형 19만4000원까지 보험료의 67%(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2764명이 가입했으며 농작업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209명이 4억1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의령/ 최판규기자 <chpag@jeonmae.co.kr>

### 경북교육청, 이달 한달 '회의·연수 없는 달' 운영

원격수업 준비·학사운영 등 박차

경북교육청은 학교가 방역과 교육과정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 동안 '회의·연수 없는 달'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인사 발령을 지난 1월 말로 한 달 앞당겨 2월 15~19일까지 '새 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 운영으로 새 학년 시작 전 교육공공체 모두가 참여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회의·연수 대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체계 구축 및 원격수업 준비, 안정적인 학사운영 체계 구축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꼭 필요한 회의 및 연수일 경우 통합 운영하고 참석 대상자를 관리자로 전환하며 비대면 회의로 실시한다.

각급 학교에서도 교무행정지원팀 운영을 내실화해 학교 업무를 재구조화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도내 23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지원센터를 전면 운영해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 신웅대기자 <shinyud@jeonmae.co.kr>

### 나주시, NH농협 나주시지부 제휴 카드 기금 전달

전남 나주시는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에서 2020년도 나주시 제휴카드 적립기금 7464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금은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작년 한 해 공무원 복지·법안카드, 각종 단체에 발급된 보조금 카드 이용액 0.1~1%를 적

립한 금액으로 지역 복지증진 및 개발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농협 나주시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나주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 특이민원 비상대응 모의 훈련 실시

전남 장흥군은 최근 군청 민원봉사대에 공무원, 청원경찰 등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 폭행 상황을 가정해 특이민원 비상대응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모의 훈련은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로 계획됐다.

이날 훈련을 통해 민원실 비상대응 대응에 대한 각각의 임무 현황과 긴급 상황 시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 위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경찰의 신속 출동 협조 체계를 확인해 유사시 지원과 방문 민원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중순 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따라 신속히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 김금욱기자 <ko-kim@jeonmae.co.kr>

### 영주시, 연초 발행한 지류식 상품권 100억 완판

전년대비 6.2배 상승 내달 판매 재개

경북 영주시는 연초에 발행한 지류식 영주시상품권 100억원어치가 완판됐다고 4일 밝혔다.

지류식 상품권은 지난 한 달 약 62억원이 판매됐다. 전년 동월 10억원 대비 6.2배에 달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주시상품권의 인기가 높고 있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10% 할인행사,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2019년 12월 기준 1.905개소 → 2020

년 2월 기준 4.270개소) 등이 꼽힌다.

완판된 지류식 상품권 신규 발행 재고는 한국조폐공사 지류식 상품권 취급 일정에 따라 4월 초 공급될 예정이다. 대신 지류식 상품권 공급 전 2월 출시된 '카드형 영주시상품권'을 이용하면 지속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욱현 시장은 "영주시상품권에 큰 관심 가져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2월 출시된 카드형 영주시상품권에도 큰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 임창호기자 <changho@jeonmae.co.kr>

### 보성군, 울포해양복합센터 구축 박차

설계용역 보고회 개최

전남 보성군이 3일 김철우 군수, 관계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포해양 복합센터 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시설 계획은 세계 최장 길이 45m 스킨스쿠버빌, 생선채취장, 실내 서빙장, 수중 스킨다이빙, 인피네티 홀과 국내 최장 길이의 스카이워크 등이며 세계적 해양문화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레저 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전국에서 단 두 곳이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군은 설계 용역을 거쳐 연내에 사업을 착공하고, 2024년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은 추가로 해양 SOC사업을 유치하고 동양철, 군항철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며 이를 통해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울포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으로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고 울포 해변을 남한대 대표 해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 박종수기자 <pis@jeonmae.co.kr>

### 함안군, 가축방역대책 본격 추진...29억5천만원 편성

총 30개 방역·축산물 위생사업 집행

경남 함안군은 관내 가축의 안전한 위생 관리와 각종 전염병 차단을 위해 2021년 가축방역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축방역대책은 ▲올 한해 전반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세부 추진 계획 ▲기관 및 단체 간 역할 분담내용 ▲축종별 필요되는 예방약품 및 소독약품 선정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공급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축방역대책에 포함된 주요사업으로는 '구제역, AI, ASF의 상시방역 체계 구축',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근절', '닭 뉴캐슬병 등 예방 백신 12종 공

급', '축종별 방역약품 총 11종 구입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6명의 공수의를 위촉운영 중이며 3개의 공동방제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가축방역 예산은 약 29억 5천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총 30개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경남 인접 시군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도래지 및 인근 축사에 출입을 금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한해도 함안군의 가축방역 청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안/ 김정도기자 <jkd2009@jeonmae.co.kr>



전남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농협은 서울에서 전남의 품으로 새롭게 등지를 들고 생활하게 된 유학생 아홉 명을 찾아 격려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순천교육지원청 제공>

### 순천교육청-순천농협, 순천 등지 특산물 유학생 격려

김치·생태 도감 전달

전남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농협은 서울에서 전남의 품으로 새롭게 등지를 들고 생활하게 된 유학생 아홉 명(월등초·월전중)을 찾아 격려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유학을 가던 시대를 넘어 전남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서울 학생들이 전남 순천에서 더 신나게 놀고, 더 길게 배우며,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

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이다.

이날 순천농협 강성재 조합장은 순천의 농산물로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를 전달했으며 이음덕 순천교육장은 자연친화적 교육을 위해 생태 도감을 학생들에게 전달 격려했다.

이음덕 순천교육장은 "신나게 뛰놀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생애체험을 최적인 도시인 순천에서 맘껏 접하게 될 것 바란다"며 "자연과 벗삼아 행복한 농촌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제주도, 차니무 7품종 유상 분양

제주도가 자체 육성한 차니무 7품종 1500kg 분량이 농가에 유상 분양된다.
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장은 차니무 '금실', '비취실', '참녹' 등 총 7품종 1500kg 분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

보령시, 찾아가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충남 보령시는 4일부터 연말까지 보령시건축사회와 함께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무료 건축상담실'은 2019년 모두 38차례에 걸쳐 90건, 지난해에는 41차례에 걸쳐 85건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내실 있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철원군의회, 제267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

강원 철원군의회는 4일 제267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박기준·한중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각 실과소장의 답변과 보충·추가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의 관련해 분양에 민전을 기해달라는 주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주민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선정

강원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4700만 원을 확보했다.
4월 군에 따르면 이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제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고양시, 경기도 관광특구 5곳 중 '으뜸'

평가 3년차 만에 수월 제치고 '1위' 온라인 홍보활동 확대 부분 돋보여

경기 고양시 관광특구가 각광받고 있다. 4일 시는 도가 진행한 '2020년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관광특구 평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4일 시는 도가 진행한 '2020년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관광특구 평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재성,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원, 과주, 동두천, 평택을 포함한 5개 관광특구 중 1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관광서포터즈, 캠퍼 등 온라인 홍보활동 확대 부분이 돋보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창의적으로 도입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시의 새로운 관광플랫폼으로서 '고양관광정보센터' 활용, 고양 인근 지역과의 관광코스를 연계한 '고양시티투어' 등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주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한류 문화를 덧입힌 '고양 관광특구 뽀뽀 한류 플러스'라는 개념의 관광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을 선도할 청년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관광테마 프로그램 운영, 관광정보센터에서 라메스타·웨스트덤·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빛의 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만의 특별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는 과학 및 산업기술의 융합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 과학·산업기술 융합연구개발 협력 강화

경기 화성시가 미래형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과학 및 산업기술의 융합연구개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전날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서철모 시장과 박준홍 LH 동탄사업본부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김중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이낙규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장, 해남읍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 및 산업기술의 융합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는 동탄 신도시의 발전과 함께 한국 융합연구 개발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이에 따라 LH 주축으로 동탄1 신도시 내 1만 5000㎡ 규모에 전문 연구소와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 시장은 "다양한 연구기관이 들어서면 우수 인재도 함께 유입될 것"이라며 자족 도시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까지 화성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기차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횡성군, 2023년까지 314억원 투자 경형화물차 시장 전기자동차로 대체

강원 횡성군은 횡성을 목재리 탄약고 부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인접지 2만 8200㎡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304㎡ 규모 '전기차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튜닝 전기차 제작을 위한 장비구축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단종되는 다마스, 라보 등 경형화물차 시장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나선다.
전기차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으로 기술개발부터 생산시험, 실증, 시작차 제작, 부품 수급까지 전기차 생산 과정을 원스톱 지원, 기술은 갖추고 있으나 생산여력이 부족한 전기차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전기차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는 국비 150억을 포함, 총사업비 314

억이 투자되며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
장신상 군수는 "현재 양산하고 있는 우전 산업단지 전기자동차 생산시설과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전기차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지식산업센터, 신규 이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횡성군이 명실상부한 이모빌리티의 거점 도시로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군,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 3종 무료 지원

319농가에 22일까지 배부

강원 정선군이 2021년 과수화상병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4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과 및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19농가 520.6ha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약제 3종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으로 화상병

예방 약제 배부는 오는 22일까지 농가별로 배부할 예정이다.
군은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을 위해 화상병 약제의 살포 시기는 사과나무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1차 약제인 동제를 살포하고 과수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4월과 6월 사이에 2차 방제 약제를 살포, 2차방제 10일 이후 3차 방제를 실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경기 양평군이 대표적인 축제인 양평부추축제가 도에서 선정하는 2021 경기관광 특성화축제로 선정됐다. <양평군 제공>

양평부추축제, 경기관광 특성화축제 선정

도비보조금 3000만원 확보

경기 양평군이 대표적인 축제인 양평부추축제가 도에서 선정하는 2021 경기관광 특성화축제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양평 부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주민회합을 위해 오는 9월 11일과 12일 2일 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주기에 따라 개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전야제, 개막식, 축하공연, 경연대회 등 다양한 기획으로 알찬 구성이다.
이번 경기관광 특성화축제의 심사는 축제기획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 축제 발전전략, 축제의 효과 등의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대표축제 선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도비보조금 3000만 원과 컨설팅·홍보 등 축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 할 예정이다.

승파구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
승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본부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 예정 직위 및 인원
2. 보수수준: 공단 보수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함
3. 자격기준
4. 지원방법 및 합격자 발표
5. 지원서류
6. 기타 사항

신랑 김성진군 (김정호·노규자씨 아들)
신부 이도희양 (전국매일신문 서울본사 이신우 부국장·염은자씨 딸)
일 시 2021년 3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서울 목동 지구교회외 사랑채를 2층 사랑채

생활안정정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누리세요
전국매일신문 광고문의 1588-5762
FAX : 031) 755-5653

플랫폼 혁명이 온다!
블록체인, 플랫폼 혁명을 꿈꾸다
이차웅(기획재정부)

블록체인의 미래, 암호화폐가 아닌 플랫폼을 보라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아닌지와 같은 소모적 논쟁에서 빠져나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시야를 넓혀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신국판 양장본·368쪽·24,000원

인구와 부동산의 미래
앞으로 10년, 인구 변화가 만드는 부의 흐름을 찾아라!
인구 변화의 궤적에 숨겨진 부동산 투자자의 비밀
이전 50년의 인구 변화에서 이후 10년의 투자 전략을 세운다



오늘의 날씨

한낮 포근한 '경칩'

5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았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조금 낮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0도 이상 분포를 보였다.



[사투리뉴스]

“코로나 확진으로 난리남 의사일정 문밖 멈춰버린”

“2일 제주도의료원에 드르른 이날 총무담당관실 직원 A씨는 지난날 1일 오후 10시에 보건당국한테 코로나19 확진이엔 들어수다”

제주도의료, 코로나 확진 '비상'... 의사일정 전면 중단

제주도의료는 2일 총무담당관실 직원 A씨가 지난 1일 오후 10시에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 사투리 기사와 관련 독자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건축공사장 59곳 안전점검 실시

세종시가 4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건축공사장 59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취약 우려가 높아지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추진하며 소방본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동천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경기 동천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시행한다.

동천/ 이육균기자 <leewg@jeonmae.co.kr>

“광주 서구청 침수대책, 피해 주민 속였다”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독립관로 연결 등 합의내용 허위” 주장

광주광역시 서구가 해마다 극심한 침수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침수피해방지 공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결책을 마련, 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국 하수관리과에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모든 내용이 합의 내용과 달랐고 사실이 아닌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 박형민 대표는 “서구는 지난날 24일 오후 7시 주민대책위 사무소에서 열린 제5차 주민설명회에서 군분천 하수박스 외 독립관로를 상무대로를 횡단, 감문외과(상무대로 1088) 앞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상하 간의 이견을 보였던 상무대로 횡단과 관련, 부족한 예산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 약속을 확보받았으나 이날 중 가능

하다고 서구가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 간 상무대로 횡단 시공의 쟁점이 됐던 까닭은 ‘감문외과 앞 교량 구간’의 공간이 넓고 낙차가 커 배수 능력이 충분하다’는 서구의 일장대는 달리 교량 내의 잔해물과 교각으로 인한 유하의 장애가 크고 교량 구간 내 박스가 군분천 박스(3.5x3.5x3)보다 1m 이상 작아 말연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대책위가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준호 구 하수와 팀장은 “대책위 요구인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타당하면 예산을 추가확보, 시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범대중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대책회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임원들은 퇴근시간에 맞춰 일산대교 초입에서 캠페인성 집회 시위를 벌였다.

“일산대교 무료화” 시민도 나섰다

범시민추진위, 캠페인성 집회 시위 서명운동 동참 권유 등 홍보 나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강력한 무장을 예고하고 나섰다. 4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일산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대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임원들도 적극 동참은 물론 홍보도 나서 서명운동 동참 권유와 회원 확보를 위한 SNS 등의 활용은 물론 온 오프 상에서 캠페인과 함께 1인 시위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논의했다. 또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와 함께 범시민 추진위원 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해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앞장설 것을 현명하며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

와 공공편익을 위해 고양시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한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함께 고양시·파주시·김포시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임원들은 퇴근시간에 맞춰 일산대교 초입에서 캠페인성 집회 시위를 벌였다. 고양/ 임철영기자 <imci@jeonmae.co.kr>

서산시 천수만에 법정보호종 늘어났다

독수리·노랑부리저어새·황새 등 안착 흑두루미 1일 최대 4천개체 이상 도래



충남 서산시 천수만에서 확인된 노랑부리저어새.

충남 서산시 천수만에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수가 늘어나 새로운 볼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천수만에는 흑두루미, 황새, 독수리 및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천수만은 흑두루미가 일본 이즈미시와 순천만으로 이동하는 주요 기착지로 하루 최대 4000개체 이상이 도래하고 있다. 또 독수리는 서산비드랜드 주변에 지속적인 먹이제공을 통해 하루 최대 70여 개체가 도래하는 성과를 보였다. 황새도 간월호 상류 도랑천 하류에서 국내 방사체제와 겨울철새가 어우러져 최대 47개체가 확인됐고 노랑부리저어새도 도랑천 하류 지역에서 50여 개체가 관찰되기도 했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법정보호종이 관찰되는 지역으로 유명했으며 최근 그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산의 정경함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천수만 철새도래지에서 다양한 법정보호종 관찰은 정경 서산의 방증”이라고 밝혔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인천경찰, 6살 조카 학대해 숨지게한 외삼촌·외숙모 구속

특례법상 이동학대치사 혐의

인천에서 지난해 8월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6개월 만에 이동학대치사 혐의로 그의 외삼촌과 외숙모를 구속했다. 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날 말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지난해 말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외숙모인 A씨 아내는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11분께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조사하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으나 당시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하지만 이후 6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최근 A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한 유증 범의약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이었는데’ ‘흔들리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명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계속 보강 수사를 받아 정황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맹형수기자 <mchs@jeonmae.co.kr>

경기도, 근무지 이탈 ‘판짚’ 공무원 중징계

초과근무등록 후 골프연습장 출입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치다 경기도 감찰관에 탐미를 잡혀 중징계 조치됐다. 4월 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

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한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7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최대호 안양시장 “1회용품 사용 줄여야”

‘고고챌린지’ 동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고고챌린지’ 동참을 선언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시장은 박승원 광명시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최 시장은 SNS에서 시의 슬로건인 ‘비닐 사용은 줄이고! 폐비닐 분리배출은 더하고!’로 ‘고고챌린지’ 캠페인 참여를 알렸다. 최 시장은 “폐적한 지구환경을 위해 1회용품 보다 다회용품을, 비닐봉

투 대신 에코백을 사용해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제품 역시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배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전년 대비해 자원재활용센터로 수집되는 쓰레기양이 20%, 음식배달은 75%, 택배물량은 19.8%가 각각 늘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is@jeonmae.co.kr>

파주시,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수탁기관 모집

분기별 테마프로그램 등 운영

경기 파주시가 법원을 소재 별난독서문화체험장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체험장은 부지 9414㎡의 금곡교를 활용한 독서문화공간으로 위탁대상 시설은 교실, 운동장 및 관리동이다. 교실에는 독서 심화방, 교육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독서활동 공간이 있으며 야영장(17명)과 숲속 도서관은 별난독서문화체험장의 특색사업으로 활용 가능하다. 수탁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독서·문화·교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독서 기반시설을 활용해 ▲교육대상과 수요에 맞는 독서교육 및 다양한 문화교육 사업 ▲상시·월별·분기별 테마프로그램 ▲단체 야외활동 프로그램 ▲지역 유관기관 희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시 지역 도서관 및 마을공동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달부터 법원읍을 찾는 시민에게 특색 있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청양군, 내수면 불법 어업 수시 지도·단속

합동 단속반 편성

충남 청양군은 불법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신고, 무허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유독물, 배터리 등 유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 행위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그물크기 위반 행위 ▲잠수용 장비, 투망, 보트(동력기관 부

작)를 이용한 유어 질서위반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자원 명예감시원, 경찰, 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법 어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불법 어업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청양/ 이연영기자 <leegy@jeonmae.co.kr>

서천군, 지방세 고액채납자 징수책임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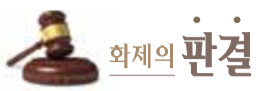
400만원 이상 채납자 44명 대상

충남 서천군은 400만 원 이상 고액채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8억 5000만 원이며 이중 4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채납자는 44명, 체납액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재무과장과 지방세 관련 팀장

및 팀원 등 16명에게 4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자로 지정해 오는 5월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책임자는 지속적으로 징수 촉탁과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정불명,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산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하게 된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가벼운 접촉사고후 뺑소니... "가중처벌은 못해"



판결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사고가 경미하다면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고현장에서 도주치상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 중 차를 몰고 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유죄·무면허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필요한 구조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2심은 당시 구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도 A씨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한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 중 차를 몰고 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유죄·무면허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구조 등 조치 필요 불인정면 사고현장 떠났다고 처벌 대상 아냐"

연남뉴스/ 민경리기자

“방역지킨 우리는 재난지원금 빼고, 떼쓰면 주고...” 전세버스기사들 ‘노발대발’

노조, 추경 통과전 단체행동 예고 “4차 재난지원금 기준 뭐냐” 반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형성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노점상에게 50만원씩 지원하고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총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겨우내 목은 때 벗겨내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고가차도에서 팔달구청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청소 차량 등을 이용해 방음벽 등 도로 시설을 청소를 하고 있다.

4일 하이재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 지부장은 “똑같은 운수업인데 택시만 지원해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히 지부장은 “매출감소, 승객감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면 전세버스 노동자는 수입이 없다”며 “학교 현장학습, 대학생 MT, 기업 OT를 통해 수입이 발생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놀러 가지 말라고 해놓고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노조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기 전 이르면 다음주 중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도로 점거 및 행진 시위를 진행한 바 있는 이들은 식별식도 고려할 만큼 압박한 상황이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넌고 두터운’ 범위에 농민은 예외에 없었다”며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일산서부署,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로 배달비스 급증에 따른 이륜차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경찰서 지역경찰 및 교통경찰 합동으로 이륜차 보도 주행, 소음발생 행위와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법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사고 다발지역·상습법규 위반지역·퇴근시간 및 배달 집중 시간대를 선정해 집중 위력 순찰을 실시하고 배달업체 및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교육 및 이륜차 반사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통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이에 박기태 서장은 “이륜차 관련사고 및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이륜차와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이 개선돼 안전한 일산서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정선군, 폭설 피해조사·복구 지원활동 총력

강원 정선에 최근 폭설로 인해 지역 도로와 농업시설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선군이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 받는 결과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유리온실, 인삼재배시설 등 총 98개소 4만8553㎡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가 112동 36만4665㎡, 유리온실 1동 6611㎡, 인삼재배시설 4곳 5176㎡ 등이다. 특히 31.5mm의 적설량을 기록한 일제면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은 농촌지역의 도로 재설치 작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농가가 함께 피해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 금액 산출을 통해 풍수해보완에 가입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주택 1112건, 온실 335건이 풍수해보완에 가입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주택 자분과손이나 비닐하우스 단순 비닐과손 피해는 풍수해보완에 가입함으로써 복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유광택 건설과장은 “이번 폭설로 인한 도로 및 농촌지역에 대한 피해를 빠른 시일내 복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며 “겨울철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화물차 주차장 건설 ‘눈치보기 행정’ 제동

강원도 인천시의회 제1부외장 시 용역결과 공개 촉구안 제출

인천시의회가 화물차 주차장 건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보기’ 행정으로 표류하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강원도 시의회 제1부외장(더민주, 남동4)은 오는 9일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화물차 주차장 입지 선정 용역결과 공개 촉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촉구안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50 이상 화물차는 2만대에 육박하지만 확보된 주차면수는 5000면도 되지

않아 골목길마다 화물차 주·박차로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화물차 주차장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그 결과대로 지체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정현민공사는 애초 올해까지 아암물류 2단지 내 12만7000㎡에 5t 트레일러 600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주차장(7만㎡)과 정비시설, 편의시설, 식당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연과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화물차 주차장 조성이 늦어지자 화물물류 업계와 노동자들은 “이미 2007년

결정된 공공시설이 남비현상과 이를 옹호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등 정치권들에게 발목을 잡혀 추진을 못 하고 있다”며 화물차를 동원한 도로 시위 등 ‘실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강 부외장은 “시와 자치구들이 송도, 청라를 비롯한 국제도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다”면서 “행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소중하지만, 특정 지역 커뮤니티가 권력화해 인권의 모든 의제를 장악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인천/ 정원기기자 <wk-ck@jeonmae.co.kr>

사건·사고

길에서 2천만원 주운 할머니 40분만에 찾아

길에서 흘린 2000만원을 주워준 80대 여성을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이 신속히 찾아내 40분 만에 돈을 회수했다.

4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2000만원이 든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가 보니 빈 봉투만 남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잃어버린 돈의 주인은 80대 노인이다. 갑자기 급히 쓸 곳이 있어 수표를 인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은행에 수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고양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공조를 요청했다. 관제센터에서 주변 CCTV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한 여성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서 수표를 꺼내 넣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관제센터는 용의자의 인상정보와 실시간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경찰에 공유했고, 돈을 가져간 80대 여성 A씨는 신고된 지 약 40분 만에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대행히 수표도 바로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다.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오토바이 운전자, 차에 벽돌 던지고 달아나

승용차 뒷유리에 오토바이 운전자 벽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7시 17분께 강남구 대치동 한터역사거리 인근 백화점 앞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앞차기엔 승용차 뒷유리에 벽돌을 던져 깨트리고 도주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한 연arkin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신호대기 중 ‘퍽’ 소리가 나서 처음엔 누가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뒷유리가 깨져 있었다”며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놀라서 울고 정신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우회전 중 한 오토바이가 앞으로 끼어들어 경적을 한 번 울렸다”며 이 오토바이 운전자 인근 공사장에서 벽돌을 집어 들고 쫓아와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사경찰서 관계자는 “CCTV 분석 등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적해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남양주 고물상서 작업중 안전사고 신속 구조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고물상에서 지난달 27일 새벽 3시 10분경 혼자 작업 중이던 인부가 잡게 차량에 고물 상차 후 압착 지지대를 조작하던 중 뜻이 빨려 들어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신속 출동한 경찰관에 구조됐다고 4일 밝혔다.

작업 인부는 마개통 휴대폰을 이용해 “살려주세요”라는 112신고를 했으나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로 GPS를 이용한 주변 수색 활동에도 발전치 못했다.

이에 출동 경찰관은 싸이렌을 켜고 이 소리를 들은 작업인부 서모씨는 “여기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쳐 발견할 수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 구조장비를 갖춘 후 뒤이어 도착한 119구급차를 이용해 긴급 후송했다. 서모 씨는 “혼자서 작업을 하던 중 뜻과 함께 어깨까지 지지대에 빨려 들어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관 덕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양주/ 김갑진기자 <gikim@jeonmae.c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실시됩니다.

예방접종 대상 확인 및 예약 절차

개인별 예방접종시기안내

Diagram showing steps for individual vaccination: 1. Check eligibility (연령, 기저질환 여부, 직업 등 정보입력). 2. Personal responsibility for vaccination (개인의 해당부기 예방접종대상포함 여부 및 추후 접종가능시기 안내).

예약 안내

Flowchart for vaccination reservation: 1. Reservation management (예약가능 안내[SMS 등]). 2. Reservation target (65세 이상, 일반국민 등). 3. Reservation target (예방접종 대상인 경우 가까운 예방접종 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 1차 예방접종 가능 시기를 선택하여 예약). 4. Reservation target (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의향 제출, 기관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5. Reservation target (우선순위 대상기관 근무자). 6. Reservation target (예방접종 대상). 7. Reservation target (예방접종 예약, 누리집(민선21, 도민일), 콜센터). 8. Reservation target (예방접종 예약). 9. Reservation target (예방접종 계획 수립, 예방접종 의향 제출, 예약가능 안내[SMS 등]). 10. Reservation target (대상기관 (병원 등)). 11. Reservation target (예약신청금 등 일정 조율). 12. Reservation target (예방접종 실시). 13. Reservation target (질병 관리청).

예방접종 기관에서

Diagram showing steps at the vaccination site: 1. Waiting (대기). 2. Vaccination (예방접종). 3. Post-vaccination observation (예방접종 후 관찰). 4. Waiting (대기). 5. Vaccination (예방접종). 6. Post-vaccination observation (예방접종 내역 확인시 수령(1차), 15~30분내 이상반응 관찰).

예방접종이 끝나고

Diagram showing steps after vaccination: 1. Post-vaccination (예방접종 직후~3일 까지). 2. Post-vaccination (귀가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 3일간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 진료). 3. Post-vaccination (이상반응 있는 경우). 4. Post-vaccination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 콜센터(0339) 또는 관할보건소로 연락, 예방접종 후 3일내 이상반응 확인 문자 발송). 5. Post-vaccination (본지 수신 문자에 한함).



동정

해빙기 대비 주요사업장 점검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5일 오후 2시 해빙기 대비 주요사업장 2일 차 점검.

울산중양청과시장 장학금 기탁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5일 오후 2시 30분 영천시새마을지도자 화북면협의회, 5시 30분 울산중양청과시장(주)으로부터 장학기금을 기탁 받는다.

소비·투자 재정집행 점검회의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강당에서 열리는 1분기 소비·투자분야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참석.

칠갑마루 활성화용역 보고회
김도근 충남 청양군수는 5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칠갑마루 공동브랜드 활성화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정책동행 현장체감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는 5일 오전 9시 30분 마서면 등에서 정책동행 현장체감에 참석.

민주평통지원회의 정기회의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주평통지원회의 예산군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

고한 구공탄시장 방문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5일 오전 10시 고한 구공탄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는 5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양양군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



권정자 씨, 문경시장학회에 1억 기탁

경북 문경시는 전날 권정자(82·서울 용산구 보광동 거주·왼쪽 세번째) 씨가 (재)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경을 팔영리가 고향인 권정자 씨는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고향의 학생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서울에서 살지만 지금도 고향을 생각하면 항상 그리고 예뻐한 마음이 든다. 고향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지역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 안병관기자 <ahn-bk@jeonmae.co.kr>

최용석 한국해양물류학회 회장

순천대학교 물류학과 최용석(사진) 교수가 한국해양물류학회 회장에 선임됐다.
최 선임회장은 "급변하는 해운물류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제안하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교수는 순천대 창업지원단장, 해운물류연구 편집위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문위원, 항만공사 자문위원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운/ 박준복기자 <bjb@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람투자’로 국민훈장 동백장

명위진 파인문화장학재단법인 이사장 복지사업 등 사회공헌활동 헌신 공로

충남 청양군 운곡면 출신 사업가 명위진 파인문화장학재단법인 이사장이 최근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명 이사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소득을 가져다주는 것이요,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이야말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의 시작’이라는 지론으로 사회공헌활동에 헌신해 왔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고향 청양과 전

국의 유망 인재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 그리고 전국 도시설 지원에 성심을 다했다.
명 이사장은 (재)대하장학회와 파인문화장학재단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이와 별도로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 15억 원을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 100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쾌척했다.
또한 명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에 5억 원, 서울아산병원에 15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했고 포항지진 복구지원비 2000만 원 등 크고 작은 재난복구 지원에도 애정을 쏟았다.
청양/ 이진영기자 <leegy@jeonmae.co.kr>



김동일 정선소방서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 송수호(왼쪽) 회장·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민병수 회장이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선소방서 제공>

정선소방서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챌린지 동참

공감대 형성 필요성 강조
강원 정선소방서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 송수호 회장과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민병수 회장이 4일 국가균형발전의 염원을 담아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챌린지에 동참해 전 국민

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챌린지는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올해 처음 시작하였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김동일 보령시장 “편의 버리고 불편 받아드려야”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전날 생활속 탈 플라스틱 실천 운동으로 실시하는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김 시장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고 지켜야 할 행동으로 반드시 분리 배출해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다음 참여자로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돈곤 청양군수,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시장을 지목했다.
김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편의는 버리고 불편을 받아들여 일회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생활속 탈 플라스틱 실천 운동으로 실시하는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령시 제공>

용 플라스틱 줄이기를 생활 속에서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 이진영기자 <leegy@jeonmae.co.kr>

김기하 동해시의장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해야”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기하(사진) 강원 동해시의회의 의장은 4일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감지기와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119릴레이는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 불은 대비 먼저!’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화재 예방과 대처 요령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

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김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희문 강릉시의회의 의장, 이명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박성중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목했다.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수령 460년 산천재 남명매 만개
경질을 앞둔 4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 초식유적지 산천재의 남명매가 만개해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 수령 460년을 맞는 이 매화는 남명이 61세이던 명종 16년(1561)에 직접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산천재 앞에는 지리산 천왕봉이 한 눈에 들어와 매년 봄 많은 매화탐방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산청/ 박준복기자 <bjb@jeonmae.co.kr>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원용교(사진) 쌍용양회 동해공장장은 전날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원 공장장은 김경희 동해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공장이 소재한 삼화동의 어린이 교통안전절을 함께 책임지자는 의미로 임원심 삼화상생협의체회장과 황인옥 삼화동 통장협의회장을 지명했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포토뉴스



정윤경·임채철 경기도의원, 성남교육지원청 방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과 임채철 부위원장은 최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정선 여령신용협동조합, 저소득층 자녀에 장학금 전달
강원 정선 여령신용협동조합은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내 저소득층 가정 자녀 1명을 선정해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순천교육지원청,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은 전날 대회의실에서 신규교사 6명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목포상공회의소, 복지재단에 성금 1000만원 기탁
전남 목포상공회의소가 전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목포복지재단에 성금 1000만 원을 지정·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목포/ 권상욱기자 <ksy@jeonmae.co.kr>



정흥군 인양농협, 조합원에 KF80 마스크 무상 지원
전남 정흥군 인양농협이 최근 1400명의 전 조합원에게 1인당 50매씩 총 7만 장의 KF80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정흥/ 김금욱기자 <ko-kim@jeonmae.co.kr>



LX 강원지역본부 철원지사, 한철 운동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강원지역본부 철원지사는 최근 장기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활력 수급 상황 악화에 따라 ‘LX 사랑의 한철 운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대야도 어촌계, 태안군 인민면에 100만원 기탁
대야도 어촌계가 전남 태안군 인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가 추천하는 인민을 행복할 기부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고흥군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전남 고흥군은 전날 개학을 맞아 고흥읍 고흥동초교 삼거리에서 고흥경찰서, 자율방재단 등 30여 명이 합동으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에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고흥/ 구자혁기자 <jkh@jeonmae.co.kr>

이재명 안양시의원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탈 플라스틱 ‘고고챌린지’ 동참

경기 이재명(사진) 안양시의회의 의원은 최근 탈 플라스틱 실천운동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되 생수병 대신 텀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원구의 회 최윤남 의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의왕시 전경숙 전의장, 광명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호 의원을 지명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is@jeonmae.co.kr>

이가희 제31대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와 소통”

경북청도교육지원청 제31대 이가희(사진) 교육장이 최근 취임식을 가졌다.
이 교육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지난 1984년 경북 봉화에서 첫 교직생활을 시작해 장학사, 교감, 교장, 교육연구원 등의 직위를 두루 거치며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교직원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교단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헌신해 왔다.
이 교육장은 풍부한 학교현장 경험과 교육전문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행정력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청도지역 교육현안 문제를 지역공통체와 소통해 해결해 나갈 책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청도 교육의 새로운 앞날을 위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는 청도교육 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교육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장현국 더민주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정권 재창출 위해 최선을”

장현국 경기도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장 의장은 지난 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장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장현국 경기도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경기도의회 제공>

철원군 새마을회, 회장단 이·취임식

군수·각급 단체 공로패 전달

강원 철원군 새마을회는 전날 본회 건물 3층에서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신순자 새마을부회 회장, 이경운 새마을문고 철원군지부회장, 이정일 새마을지도자김희열협의회장, 임명호 새마을지도자김팔음협의회장, 전호병 새마을지도자김남현협의회장, 김학재 새마을문고철원읍분회 회장단에게 군수 감사패를 비롯 각급 단체의 공로패를 전달하고 제18대 이예숙 부녀회장과 제20대 장춘집 회장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정연권 새마을지회장은 추사를 통해 “신



강원 철원군 새마을회는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철원군 새마을회 제공>

순자·이경운 회장의 20여년 봉사활동에 사랑과 존경을 보내고 새로 취임한 이예숙·장춘집 신인 회장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 동참

황명선 논산시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도에서 시작한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양승조 도지사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황 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함께 키우며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함께 보살피는 따뜻한 동고동락의 정신으로 이번 릴레이 챌린지에 마음을 보탠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과 김석환 홍성군수를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도에서 시작한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논산시 제공>







# Welcome on board.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IONIQ 5



사전계약 중